



그라운드서 꽃피운 선후배 사랑 제15회 사은 골프대회 동문·교수 화합의 장



본회는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월 11일 인천그랜드CC에서 모교 교수, 본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사은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3면>



총장배 각종 구기대회...2천5백여 명 참여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모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과 운동장에서 재학생 및 교직원 이 참여한 가운데 총장배 구기대회가 진행됐다. <관련기사 14면>

제10회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

7월 14일 오전 9시30분 모교 농생대 제3식당

- ◆일 시 : 2013년 7월 14일(일) 09:30~17:00
- ◆장 소 : 모교 관악캠퍼스 농생대 제3식당(75-1동)
- ◆참가대상 : 동문, 재학생 및 교직원(단, 아마 7급 이상)
개인전 출전자는 단체전 출전 불가
- ◆진 행 : ①단체전 : 단과대·지부별 5인, 복수팀 가능
②개인전 : 棋力別 64명 이내
※총 호선(팀 6점반 공제), 변형스위스 리그
- ◆신 청 : 2013년 6월 28일까지
서울대총동창회 홈페이지(www.snua.or.kr)
양식 참조 후 webmaster@snua.or.kr로 신청
- ◆참 가 비 : 없음(당일 참가자 모두에게 식음료 및 기념품 제공)
- ◆시상내역 : 1천만원에 해당하는 상품
- ◆기 타 : ①프로기사 초청 기념대국 ②경품 추첨
- ◆오시는 방법
- 승 용 차 : 관악캠퍼스 정문에서 본관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오른쪽 농생대 건물 주변에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버스 5513번을 타고 관악캠퍼스 내 농생대 건물에 하차
- ◆문의사항 : 전화 02)702-2233, 팩스 02)703-0755
※대회 일정이나 운영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서울대학교

관악출추

事師如親 必敬必恭, 能知能行 總是師功. '스승 섬기기'를 아버지 섬기는 것과 같이 하고 반드시 공경하고 공손하라, (우리가)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스승의 공이다'라는 뜻으로 四字小學에 나오는 말이다.

옛부터 君師父一體라 하여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한 몸이라 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아동문학가 姜小泉이 쓴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말에도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 우리라 불수록 높아만 지네 / 참되 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 스승은 마음의 아버지시다 /

아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 아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로 시작한다. 이 모든 말은 스승을 아버지처럼 여기고 은혜에 보답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저마다 스승의 날을 정해 스승의 노고를 기리고 은혜에 보답하고 있다. 유네스코(UNESCO) 주도도로도 매년 10월 5일을 '세계 교사의 날'(World Teachers' Day)로 정해 1백여 국가가 지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스승의 날'은 5월 15일로, 겨레의 스승 세종

대왕의 양력 탄신일에 맞춰 제정된 것이다.

林光洙회장의 총동창회가 지난달 11일 인천그랜드CC에서 모교 전·현직 교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동문과 교수간의 '화합의 장'을 위한 사은 골프대회를 개최한 것도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의 의미를 되새기며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학문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교수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교수는 재학생, 동문(졸업생)과 함께 대학을 이루는 3대 축이다. 이 중에서도 교수는 한평생을 강의와 연구로 보낸다는 점에서 대학의 주인 중의 주인이다. 이런 교수들을 성원하고 격려하는 것은 모교의 발전을 위한 일이며 제자와 동문들의 몫이다.

역사적으로 스승은 큰 존경의 대상이었다. 예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천하의 혁명가 마오쩌둥(毛澤東)도 그에게 마르크스주의를 가르쳐준 베이징대 도서관 주임 리다자오(李大釗)를 최고의 스승으로 고백한 바 있다.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은 골프대회가 올해로 15회를 맞고 있지만 더 많은 교수들이 참가할 수 있는 사은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徐玉植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본보 논설위원)

모교 사랑과 謝恩

느리나무광장

얼마 전 아프리카에서 개발구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 NGO의 현지 시찰을 동행 취재할 기회가 있었다. 直航 비행기로도 14시간이나 걸리는 멀고 먼 저개발 국가, 그것도 수도나 대도시가 아니라 시골 소도시에 머물며 말도 잘 안 통하는 현지인들을 위해 우물과 학교, 농장을 만들어주는 쉽지 않은 일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씩씩한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그 중에서도 서른 살 전후인 책임자들을 보조하고 있는 갓 스무 살이 된 남·녀 활동가가 강한 인상으로 다가왔다.

한 명은 지방의 유명한 생활공동체가 운영하는 대안 학교를 졸업하고 작년 4월에 아프리카로 왔다.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맑고 차분한 눈망울을 가진 그는 모든 것이 불편한 낯선 곳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묵묵히, 그러나 능숙하게 처리하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아프리카 지역학을 전공하는 여대생인데 1학년을 마친 뒤 지난 4월에 합류했다. 고등학교 때 봉사활동을 와서 본 아프리카가 좋아서 아프리카학과를 선택했고, 그들을 좀 더 알기 위해서 NGO 활동을 하게 됐다는 그녀는 그 또래의 보통 젊은 여성들과는 많이 달랐다.

赤道 바로 아래의 거친 땅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모교를 다니는 후배들을 생각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서울대생들은 대부분 어려서부터 ‘공부’에 매달려 살아왔다. 대학 입시가 지상과제였던 중·고등학교 시절은 물론이고 그렇게 바라던 ‘最高 대학’에 들어온 뒤에도 학점 경쟁과 스펙 쌓기에 몰두하느라 세계는커녕 나라 안의 이웃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기 힘든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취업전쟁은 우리의 젊은 엘리트들을 점점 더 개인주의자로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과감히 바꾸는 데 모교가 앞장설 수는 없을까?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개개인에게 그런 성찰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모교가 신입생은 누구나 상당 기간 해외봉사를 다녀오도록 의무화한다면 분위기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계사를 선도했던 나라의 젊은이들은 대부분 인류애와 사명감에 불탔었다. 5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민족의 미래를 짊어질 모교의 후배들에게도 젊은 시절 해외의 奧地에서 값진 체험을 할 기회를 보다 많이 주어야 한다.

아프리카에서 만난 우리 젊은이들

李 先 敏
조선일보 선임기자
본보 논설위원



관악시단

고궁 풍경

金 淑 子(국문64-68)시인

돌담 돌아 달려온 봄 바람,
대문 들어서며 말에서 뛰어내려
입술 오므리고 선
모란 앞에 멈춘다.

100년 전 고종이 마신
정관헌(靜觀軒)의 차 한 잔,
유리창집 앞 연못까지 흘러 와
흔들리고 있다.

바람은
옛 궁궐의 기억을
모란의 귀에 대고 속삭이고

모란은
뺨을 붉히며
그리움에 너울거린다.

동문칼럼

미국의 교육학자인 로버트 루트 번스타인에 의하면 노벨상 수상자나 유명 과학자들에게 예술적 재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노벨상 수상자들이 평범한 과학자들과 비교할 때 예술가가 될 확률은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우수한 과학자들은 실험기술과 창조적 상상력을 키우기 위해 음악과 예·미술, 무용 등을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통계에 50년 이상 창조적 혁신으로 성공한 모든 기업은 디자인을 중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예술·디자인 중심의 창조적 경영을 통해 기업을 회생시키고 금세기 혁신 기업의 대명사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같이 예술과 디자인은 ‘실천적 경험과 예민한 감성에 기반한 통찰력’, ‘미래지향적 도전과 풍부한 상상력’, ‘연합과 시각적 종합력’ 등 창조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상상, 창의, 혁신의 전체 창조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李 舜 鍾
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모교 미대 학장

자인이 중심이 되어 공학이나 경영이 융합된 창조교육프로그램이나 혁신연구소들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핀란드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창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존 헬싱키의 국립미술·디자인대학교, 공과대학교, 경영대학교를 통합해 세계 최초의 국립융합혁신대학인 알토대학교를 2010년에 설립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늘날 예술과 디자인은 창의성의 원천으로서 각국은 예술과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창의성교육과 창작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 실행하고 있다. 특히 예술과 디자인을 창조에 대한 새로운 물결로 인식한 미국은 STEP(과학, 기술, 공학, 수학)이외에 A(예술)를 강조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술·디자인과 연관된 체계적인 교육이나 연구프로그램이 결여돼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세계은행 金 墉총재는 다투며스대 총장 시절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예술과 감성이 결여된 편재된 교육환경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책의 하나는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

창조사회와 예술·디자인의 중요성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오늘날과 같은 개념창조의 시대는 우뇌형 예술가가 중시되는 시대라고 말한다. 또한 21세기의 주요가치는 Six Senses 즉, ‘디자인’, ‘스토리’, ‘전체’, ‘감성’, ‘유회’, ‘의미’와 같은 예술과 디자인의 가치가 강조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추이의 반영으로 최근 비즈니스위키는 ‘기업 경영인들은 창의적 인재를 찾기 위해 예술과 디자인 학교로 시선을 돌리고 있고, 비즈니스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으로 많은 대학과 연구소들이 디자인융합 창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국외의 스탠퍼드의 D-School, 도쿄대학의 I-School, MIT의 미디어랩, 하버드의 I-Lab 등은 예술과 디

예술창작 교과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이고, 예술과 디자인적 사고가 담긴 융합교육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등 통찰과 감성, 상상과 시각적 종합을 통한 우뇌적 창의성을 계발시키기 위해 교육의 총체적인 구조와 프로그램을 재편하는 것이다. 또한 창조적 연구개발을 위해서 예술과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과 미래 세계를 꿈꾸고 열어가는 창조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 연구개발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21세기 창조의 시대에 예술과 디자인 중시 교육과 연구토대가 하루 빨리 조성돼 이 분야가 국가의 창조성을 증진시키고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신동력이 되길 기대해 본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인쇄인 孔 大 植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416호 (장학빌딩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65)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e-메일 snua1969@naver.com

논설위원 金哲洙, 林炯斗, 金鍾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靚,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金亨珉, 李東官, 李啓聖, 金旻日, 金鎮國, 崔英勳, 吳在錫, 李容式, 李先敏, 金昌均, 李相起, 鄭然旭, 蔡耕玉, 許文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朴新載, 林香默, 金貞美, 邊延洙



본회 林光洙회장은 시상식에서 “글로벌 리더 양성과 학문 연구에 매진하고 계시는 교수님과 동창회 임원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15회 모교 초청 사은 골프대회

康文晟교수·鄭然世동문 우승

75명 참가... 모교 및 동창회 발전 기원 샷

‘스승’의 의미를 되새기며 동문과 교수 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사은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본회(회장 林光洙)는 스승의 날을 기념해 지난 5월 11일 인천그랜드CC에서 제15회 사은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모교 교수, 본회 임원 등 총 75명이 참가해 20개조로 나눠 경기를 치렀다.

경기 직후 클럽하우스에서 가진 시상식 및 기념 만찬에서 林光洙회장은 “항상 뜨거운 열정과 집념을 갖고 글로벌 리더 양성과 학문 연구에 매진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과 모교의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오신 동창회 임원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돼 더없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시대의 지성이자 사회의 리더인 여러분이 헌신과 노력이라는 정확한 퍼팅을 더해 주신다면 모교는 세계 초일류 대학이라는 승리의 트로피를 반드시 거머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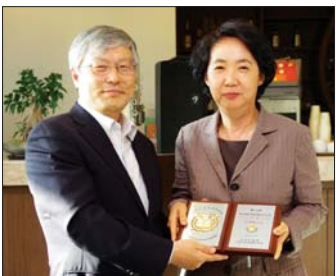
남자 롱기스트 李政宰교수(右)



남자 니어리스트 朴天卿교수(右)



여자 롱기스트 梁景淑교수(右)



여자 니어리스트 鄭鎮星교수(右)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화합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모교 邊昌九교육부총장은 “모교의 오늘은 어려울 때마다 큰 힘이 돼주신 동문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를 포함한 구성원 모두는 모교가 우리사회의 번영과 행복에 기여하는 창조적 지적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앞으로도 동문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동창회장배 康文晟교수(右)



모교 총장배 鄭然世동문(右)



메달리스트 朴榮敏동문(左)

다”고 전했다. 이어진 건배 제의에서 모교 李基俊 前총장은 “모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졸업생을 배출해야 한다”며 “이런 일을 이끌어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林光洙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본회 朴英俊감사의 경기 결과 발표 후 시상에 앞서 고려대 朴榮敏(체육교육62-66) 명예교수는 “은사님들을 대접하기 위한 사은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대학은 전 세계에서 서울대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 林光洙회장이 모교 교직원 중 우승을 차지한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康文晟(농업토목86-93)교수에게 ‘동창회장배’를, 모교 邊昌九교육부총장이 동문들 중 우승을 차지한 한국선급엔지니어링 鄭然世(토목공학53-57)회장에게 ‘모교 총장배’를 수여했다. 메달리스트는 그로스 73타를 친 고려대 朴榮敏 명예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康文晟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오늘 참석한 동문 중 가장 나이가 어려 굉장히 불편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롱기스트상 남자부문은 2백40m를 기록한 모교 교수협의회 李政宰(농공학69-73)회장, 여자부문은 2백10m를 기록한 모교 국악과 梁景淑(국악73-79)교수가 수상했다. 니어리스트상 남자부문은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朴天卿(기계공학52-56·1.7m) 명예교수, 여자부문은 모교 사회학과 鄭鎮星(사회72-76·5.2m)교수가 수상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경품 추첨에서 모교 약대 李秉勳(제약80-84)교무부학장이 디지털 피아노 당첨의 행운을 안았다. 또 기타 3대의 행운은 본회 朴英俊감사, JTBC 南善顯(대학원77졸)상임고문, 모교 치의학과 李成中(미생물87-92)교수에게 돌아갔다.

한편 참석자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골프공 및 보온·보냉컵을 기념품으로 받았다. (香)

<조별 우승자 명단>

▲OUT코스

1조 : 李基俊(화학공학57-61) 前총장, 2조 : 본회 孔大植(기계공학56-60)부회장, 3조 : 경제학부 金完鎭(경제72-76)교수, 4조 : 태진공영 洪宗浩(사회62-66)대표, 5조 : 국어국문학과 張素媛(국문80-84)교수, 6조 : 중앙대 예술대학 李澈周(회화61-67)명예교수, 7조 : 바이오

시스템소재학부 卓泰文교수, 8조 : 한국자기주도학습개발원 金貳煥(신대원72-75)원장, 9조 : 제약학과 李相國(제약81-85)교수, 10조 : 식물생산과학부 高熙宗(농학76-80)교수

▲IN코스

1조 : 南益鉉(경영81-85)기획처장, 2조 : 텔코경영연구원 琴震鎬(법학50-58)회장, 3조 : 내일신문 金鎭銅(국문58-64)논설고문, 4조 : 코리아랜드감과니 鄭八道(AIP 1기)회장, 5조

: 개원중학교 朴銀美(지리교육84-88)교사, 6조 : 약학과 李智雨(제약학79-83)교수, 7조 : 치의학과 李相勳(치의학74-81)교수, 8조 한국향만협회 李在福(ACAD 21기)前회장, 9조 : 국악과 林宰沅(국악76-80)교수, 10조 :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朴宗信(섬유공학75-79)교수

▲협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林光洙회장 : 골프장 사용 및 식음료 일체

• 姜信浩교문 : 에너지·포카리스웨트 각 1백개
• 李吉女부회장 : 머그컵 세트 1백개
• 李金器부회장 : 요거트 및 유제품 1백개
• 金鍾燮부회장 : 디지털 피아노 1대, 기타 3대
• 鄭八道부회장 : 협찬금 1백만원
• 成耆鶴상대동창회장 : 골프웨어 1백벌
• 申一汕 前AMPFRI동창회장 : 카보나 구이판 10개

Since 1984 / 미국 A.T.S사와 기술 제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Burj Khalifa에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주)가 함께 했습니다.

조인트 유창의 뛰어난 제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Thermal, Sway, Shortening, Seismic등, 초고층 건물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변위를 해결하고, 안전한
배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50층 설치



각 세대별
음용수 배관시공

■ 인증보유 현황



- U.L 인증(SLIP, BALL, MULTI JOINT)
- 정부품질 성능인증서(EPC-중소기업청)
- 정부우수제품지정증서(조달청)
- 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
- 벤처기업 인증
- 한국가스안전공사 성능인증서
- 경기도유망중소기업
- 한국전급협회 형식승인 인증



18층 설치



3층 횡주관 설치

■ 조인트유창의 주요 생산제품

플랜트용



Spare Pak Slip Joint



Spare Pak Ball Joint



Spare Pak Multi Joint
(초고온, 고압용 LS NIKKO 적용)



Dual Pak Underground Slip Joint

빌딩용



Dual Pocket Multi Joint



Dual Pocket Slip Joint



Integral Spare Pak Slip Joint



Integral Spare Pak Ball Joint



Vico Joint



JOINT YOOCHANG
THERMAL SYSTEMS CO., LTD.
www.ycvalve.co.kr

본사/공장 : 415-860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가현리 317-14
TEL : 031)988-9205~7 FAX : 031)988-9208

부설연구소 : 152-050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8 코오롱디지털타워 빌란트Ⅱ 1201호
TEL : 02)2081-1970~7 FAX : 02)2081-1978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강장수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졌지만, 모든 유대관계가 다 유익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이를테면 어떤 관계를 통해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함께 즐기며 서로 용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 어떤 보약에 못지않게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 예를 들어 원수 같은 관계에서는 반드시 유익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흔히 직업 활동을 멈추게 되는 60대 이후로도 30~40년 이상 더 살아야 하는 장수시대의 현대인들로서는 이 기간에 함께 삶을 나눌 친구와 가족의 존재가 더욱 중요해졌다. 가까이에서 소식을 주고받으며 종종 대면해 어울릴 수도 있는 친구들은 심리적으로 든든하고 편안하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가끔이라도 친구를 만나러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기관리를 안 할 수가 없으니 최소한의 긴장감을 유지해 건강장수에 보탬이 되는 것이다.

과학의 발달이 가져다 준 인생 100세 시대에 여생을 함께 할 친구가 없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는가.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건강과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돈과 건강을 가졌다 해도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없다면 그 고독은 점차 견디기 어렵게 되어갈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友테크’다. 돈을 모으고 관리하기 위해 ‘財테크’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만년의 고독을 함께 나눌 친구를 모으고 관리하는 기술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재테크를 통해 돈을 벌고 키우고 관리하듯, 좋은 친구를 만들고, 확장하고, 엮고, 관리하는 友테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잘 알려진 몇 가지 기법을 모아 봤다.

건강 장수의 비법, 友테크

△연락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연락을 하라: 友테크 또한 시간과 노력을 들인 만큼 성공 확률도 높아진다. 매년 “언제 한번 만나자”는 식으로 말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점심 약속을 잡든지 다음날 당장 전화나 이메일로 먼저 연락해 다음 만남을 약속하자.

△모임이 있다면 가까이 총무를 맡아라: 평생 ‘甲’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퇴직 후에 더 외롭게 지내는 것을 종종 본다. 항상 남들이 만나자고 하는 약속만 골라서 만났기 때문이다. 낯짜와 시간을 조율하고 장소를 예약하고 회비를 걷는 성가신 일을 나서서 맡는다면, 그룹 내의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친구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고 그만큼 깊이 있는 친구가 늘어난다.

△남녀노소를 따지지 마라: 대기업 CEO를 지낸 후 퇴직한 7씨는 퇴직 후 관련 중소기업의 제의도 마다하고 자기만의 생활을 즐기고 있다. 골프스쿨에 등록해 골프 스왕을 바로잡아 핸디를 크게 줄였고, 외국어 학원에 등록해 중국어도 새로 배우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문화센터의 피아노 레슨에도 참가한다. 함께 외국어를 배우는 학원 동료들, 지식빨리는 20대의 젊은 친구들과 어울려 영화도 보고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도 주고받는다. 골프스쿨이나 피아노 교실 수업 후에는 나이 어린 남녀 동료들과 어울려 식사와 커피를 즐긴다.

△매력을 유지하라: 외출할 때는 항상 잘 씻고 가능하면 깨끗하고 멋진 옷을 입어라. 동성끼리라도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관계가 오래 간다. 후술근한 모습을 보면 내 인생도 함께 괴로워진다. 끊임없이 책 읽고 영화 보고 새로운 음악도 들으며 매력 있는 대화 상대가 돼야 한다.

△‘友테크’의 1순위 대상은 배우자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 안에 원수가 산다면 그것은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다. 배우자를 영원한 동반자로 만들기 위해 우선 배우자의 건강을 살펴야 한다. 혼자 지는 일도 삼갈 일이다.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도 아무도 모른다면 큰일이 아니겠는가. 부부끼리 공동의 관심사나 취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 건강박사 유태종의 9988 건강습관(리스컴刊)에서 —

• 바로 잡습니다 지난 5월호(제422호) 3면 ‘건강관리 원포인트’ 내용 중 ‘소노다소(少怒多笑)’를 ‘소노다소(少怒多笑)’로 바로 잡습니다.



孔大植·張素媛·李基俊·辛鉉雄등문, 趙璧·姜榮安자문위원, 尹在錫·高健등문

장학연구지원사업 자문회의

해외 강의동영상 서비스 예산안 심의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5월 24일 서울 도화동 SNU장학빌딩 내 중식당 ‘메이차이’에서 장학연구지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의 해외대학 강의동영상 활용방안 자문위원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공동위원장이인 모교 李基俊(화학공학57-61)前총장을 비롯

해 전주대 高健(응용물리67-74)총장, 서강대 姜榮安국제인문학부장, 모교 張素媛(국문80-84)평생교육원장, 본회 孔大植(기계공학56-60)·辛鉉雄(지리64-68)부회장 등 6명의 위원과 동국대 趙璧석좌교수, 본보 尹在錫(화학공학71-75)논설위원이 참석했다.



金滉植등문 사위, 李容勳·琴震鎬등문, 辛永茂회장, 故 金正國등문 부인, 李康國등문

자랑스러운 법대인 5명 선정

법대동창회

법과대학동창회(회장 辛永茂)는 지난 5월 21일 서울 태평로2가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 및 제21회 자랑스러운 법대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辛永茂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쌓아온 공력으로 오늘 자

랑스러운 법대인에 선정되신 다섯 분께 축하와 존경의 뜻을 표하며 모교 법대인의 영원한 사표로서 같이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법대 동문들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정착시키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국내외 정세 불안정과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국



鄭潤煥회장, 金滉玉·鄭琦秀·孫海鎰·南星佑등문, 李鶴來학장

李賢秀회장 선출·상록인상 시상

농생대동창회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鄭潤煥)는 지난 5월 11일 모교 관

악캠퍼스 농생대 환경관에서 3백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상록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첫 순서로 열린 정기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

자문위원 중 한동대 崔道成(경영70-74)부총장 등 3명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서 해외대학 강의 동영상 서비스 예산안을 심의하고 시스템 개발비 6천만원, 운영비 3천만원을 장학연구지원사업 교수 강의 동영상 강좌 프로그램의 전체 예산에서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모교는 예산이 집행되는 대로 서비스 실행을 위한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개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들은 해외대학 강의 동영상의 국내화와 모교 강의의 세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본 서비스가 재학생은 물론 일반에도 제공됨으로써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함과 동시에 모교 교수진의 보다 나은 강의를 위한 자극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가와 모교의 더 나은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큰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대 동문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의의 종’을 크게 울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傘壽와 古稀를 맞이한 11회, 21회 동문을 대표해 朴永佑(행정53-57)동문과 廉仁燮(행정63-67)동문에게 추수패를 증정했다.

또 제21회 ‘자랑스러운 법대인’으로 텔코경영연구원 琴震鎬(법학50-58)회장, 고려대 李容勳(법학59-63)석좌교수, 故 金正國(행정61-65)前이화예술학원 이사장, 전북대 李康國(행정63-67)석좌교수, 金滉植(법학67-71)前국무총리를 현창했다.

이날 행사에는 辛永茂회장을 비롯해 玄勝鍾 前국무총리, 吳允德 장학재단 이사장과 임원진 그리고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 등 3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에 리빙스틴건설 李賢秀(농화학60-64)사장을 선임했다.

이어 제11회 자랑스러운 상록인 대상 시상식을 갖고 金滉玉(농화학50-55 前제주대 총장)·鄭琦秀(농경제54-58 前선명실업 회장)·孫海鎰(잠사67-75 한국현대시인협회 부회장)·南星佑(축산69-73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대표)동문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또 故 姜壽遠(농생물47-51)동문 등 4명을 명예의 전당 헌정자로 선정하고 오는 7월 중 헌정식을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총회가 끝난 뒤 제3식당에서 ‘79학번 졸업 30주년 기념 사은회 및 선배님 모시는 날’ 행사를 열었다. (載)

등반대회·장학금 모금식 개최

공대동창회

공과대학동창회(회장 尹友錫)는 지난 4월 27일 서울 관악산에서 4백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등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동문들은 화창한 날씨 속에 관악산 연주대를 등반하며 공대 동문으로서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향유했다. 등반을 마친 후 모교 공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나누며 우애를 다졌다.

한편 동창회는 등반대회에 앞서 모교 관악캠퍼스 제1공학관에서 尹友錫회장을 비롯해 崔翔五상임

부회장, 모교 공대 李愚日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배사랑 제자 사랑 장학금 모금식’을 개최했다. 동문, 교직원, 대학원생, 학부생 등 공대 각 구성원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李愚日학장에게 모금증서를 전달하고 ARS 전화결제를 이용한 장학기금 모금 방식의 활성화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동문들 중 1백71명이 ARS 모금에 동참했으며 등반대회 이후 마련된 모금함을 통해 14명의 동문이 기금을 출연하는 등 높은 호응을 보였다.



임원연수회서 사업방안 점검

치대·치대원동창회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朴健培)는 지난 5월 11~12일 대전 덕명동에 위치한 삼성화재연수원에서 임원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 朴健培회장, 金載英·金哲洙·許允姬·李元均·安聲勳·崔明鎭부회장, 黃義康감사 등 35명의 임원이 참가했다.

차회장은 첫날 인사말에서 “연

수회 기간 동안 임원들이 더 가까이 소통하고 좋은 의견들을 나눠 회무 집행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임원들은 전체회의를 갖고 올해 동창회 중점 사업인 소식지 창간과 신입회원을 위한 ‘Post DCO(Dental Community Orientation) 프로그램’, 의료봉사 등의 추진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회의 후 대전지부동창회 임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동창회 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을 가졌다.

모교 역사 자료 기증 줄이어

본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기념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5월 1~31일 4명의 동문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4월 30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12명(본보 421호 8

면, 422호 4면 게재)을 통합해 현재까지 총 16명의 동문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왔다. 추가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金榮義(사회교육49-53)동문:앨범 ▲南重熙(잠사학56-

60)동문:77~93년 급여명세서류 ▲具滋玉(농학60-65)동문:‘그때 이사람, 혼다코스케’책자 1권 ▲黃健(의학77-83)동문:등록금 영수증, 수첩, 과목별 노트류, 故 成耆峻(의학53졸)교수 소장의 수업교재류 및 육필 원고·강의교재 작성용 타이프라이터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회장 임광수)와 서울대(총장 오연천)는 2015년에 맞을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동문과 가족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 대상: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 1)문서류: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 2)시청각물류: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 3)간행물류: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 4)박물류: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사패, 현관,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 5)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 기간: 2013년 12월 31일까지

3. 수집 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 화: 02-702-2233 팩스: 02-703-0755 E-mail: webmaster@snu.ac.kr
주 소: (151-919)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4-2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본관 416호
담당자: 임성용 과장 핸드폰: 010-3945-3925

서울대학교 기록관

전 화: 02-880-8819 팩스: 02-884-7149 E-mail: archives@snu.ac.kr
주 소: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자: 김봉은 전문위원 핸드폰: 010-3032-5913

5. 제공자 혜택: 역사기념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임광수·서울대학교 총장 오연천

산행대회 및 사은의 밤 상대동창회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成耆鶴)는 지난 5월 5일 모교 관악캠퍼스 노천강당 앞 버들골에서 9백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제14회 친선산행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동문들은 점수를 끝내고 가족 또는 동기 별로 삼삼오오 짝을 이뤄 왕복 2시간 코스의 관악산 등반을 진행했다.

이어 산행대회 경품 추첨의 시간을 갖고 스쿠터, 백화점상품권,

영화예매권, 등산배낭 등을 당첨자에게 전달했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5월 10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모교 은사와 동창회 회장단, 모교 교수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승의 날 기념 사은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韓義永(경제49-54)·林鍾哲(경제52-56)·朴宇熙(경제54-58)·鄭英一(경제58-64)·郭秀一(상학59-63)·愼侑根(상학60-64)·鄭基俊(경제60-64)·李天杓(경영63-67)·閔相基(경제66-70)명예교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주며 스승의 은혜를 기렸다.



제7회 ‘한마음 대축제’ 성황

보대원동창회

보건대학원동창회(회장 金旻永)는 지난 5월 11일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에서 제7회 한마음 대축제를 개최했다.

보대원 산하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HPM)동창회(회장 朴浩永)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 동문과 가족 2백여 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동문들은 청계산 산행을 마친 후 오찬과 함께 장기자랑, 경품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며 친목을 도모했다.

한마음 대축제는 석·박사 동문들과 보대원 산하 특별과정동창회가 매년 돌아가며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송년회 등 회무 논의 사대동창회

사범대학동창회(회장 卞柱仙)는 지난 5월 10일 서울 충정로3가 동창회관에서 상임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은 오는 9월 28~29일 추계문화탐방과 11월 26일 송년회 개최 등 주요 일정을 심의 의결했다. (載)



崔滿麟·朴誠愛동문, 한 명 건너 高惠玲·朴鍾烈·崔鍾庫·李相順·沈在箕·全孝澤·金敬眞·申南植동문

‘옛 캠퍼스 홈커밍’ 행사 발의

대학원동창회

대학원동창회(회장 崔鍾庫)는 지난 5월 15일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에프아르룸에서 崔鍾庫회장을 비롯해 李相順·崔滿麟 부회장 등 12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제1차 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12년 결산 및 2013년 예산안 심의를 의결했으며 회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崔滿麟부회장은 “대학원동창회의 중요성을 알리는 글을 정기적으로 학내·외 언론에 게재하자”는 의견을 냈으며 崔鍾庫회장은 동창

회에서 출간 준비 중인 회상기 ‘나의 대학원 시절’과 매월 개최하는 ‘대학史 포럼’에 대한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동창회는 오는 10월 12일 서울 동숭동 옛 모교 캠퍼스 본관(現예술가의 집)에서 모교 명예교수협의회(회장 李壽成)와 함께 ‘라 세느를 아시나요? 서울대인의 옛 캠퍼스 홈커밍’(가제)을 주제로 강연, 전시, 공연 등의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수담으로 우애 다져 약대동창회

약학대학동창회(회장 千文宇)는 지난 5월 26일 서울 여의도동 송천기원에서 30여 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제31회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權景坤(약학56-60)자문위원은 千文宇회장을 대신한 개회사에서 “올해로 31회째를 맞이한 바둑대회의 역사에 긍지를 느낀다”며 “앞으로도 이 대회가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바둑 외에도 동문들끼리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동호회 행사가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A·B조로 나눠 진행된 이번 대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A조 : 우승 尹光洙(제약69-

73)동문, 준우승 崔奎根(약학60-64)동문, 3위 李喆準(제약68-72)·李鎮洙(약학62-66)동문
▲B조 : 우승 崔秉宇(약학60-64)동문, 준우승 金康造(약학64-68)동문, 3위 朴聖鎮(제약69-73)·崔鎮奭(약학62-66)동문

洪錫炫동문 특강 AIP동창회

최고산업전략과정동창회(회장 姜普英)는 지난 4월 15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일보 洪錫炫(전자공학 68-72)회장이 연사로 나서 ‘변영, 통합, 통일을 위한 도전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행사에는 金榮洙·趙源駿·姜錫大 前회장, 姜普英회장, 모교 공

대 李愚日학장, 姜泰晉·權東一·高承永교수 등 2백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봄나들이’ 동문 한자리 토목공학과동창회

토목공학과동창회(회장 全京秀)는 지난 4월 20일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1백6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봄나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全京秀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성적 우수 재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 2013년 ‘토목인의 상’ 수상자로 徐立圭(토목공학57-61 우림콘크리트공업 회장)·李寅模(토목공학73-77 고려대 교수)동문을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이어진 특강에서 UN 중앙긴급대응기금 韓飛野자문위원이 ‘무엇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李相順 作



하늘이고 바다이다, 유화, 72.7×53cm, 2008

〈작가약력〉

- ▲1965 모교 회화과 졸업
- ▲개인전 4회
- ▲부산여류전 1~39회
- ▲부산미술대전 심사위원 2회
- ▲부산 창작미술협회전
- ▲한울회
- ▲인천여성비엔날레 2011

- ▲2008 부산미술80년전-부산의 작가들전 (부산 시립미술관)
- ▲2006 부산 미술 재조명전 (부산 문화회관)
- ▲2006~2010 아시아 수채화전 (부산 문화회관)
- ▲2012 남부 워터컬러페스티벌 (안동 문화회관)
- ▲現부산 미협·여류전·사생회·창작미협 회원, 한울회회원, 부산수채화협회장.

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權五俊회장 연임 금속동창회

금속동창회(회장 權五俊)는 지난 4월 30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權五俊회장의 개회사와 회무 보고, 모교 현황 보고에 이어 졸업생과 동문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재료공학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林昇民(재료공학07-13)동문에게 금속동창회

장상을, 모교 재료공학부 李厚喆(금속공학63-67)명예교수에게 자랑스러운 금속동문상을 수여했다. 李명예교수는 우리나라 금속재료공학 연구의 활성화와 신기술 산업화, 후학 양성 등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2012년 회계연도 결산 및 2013년 예산안 심의를 의결했으며 임원 개선을 통해 權五俊회장과 2명의 감사에 대한 연임을 가결했다.

이날 만찬 중 모교 재료공학부 黃農文(금속공학77-81)교수가 ‘몰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載)

since 1999

S. Noble 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국내최초, 최고의 노블레스 결혼정보클럽 - S. Noble

겉으로는 비슷비슷해보이는 다이아몬드와 큐빅이 그 가치에 있어서는 하늘과 땅 차이듯, 결혼정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노블은 금방 생겼다 없어지는 수많은 결혼정보회사와는 달리 십수년의 노하우와 상류층 인맥관리로 대한민국 노블레스 결혼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지금, 느껴보십시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에스노블만의 뿌리깊은 성공매칭서비스를.

- 엄정한 심사를 통한 우수한 멤버들로 업계 최고의 성혼율을 자랑
- 업계 최초로 2명의 매치메이커가 한분의 회원을 케어하는 세심한 서비스
- 고급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클럽 외부 이상형까지의 외부매칭 서비스
- 고객의 성향까지 고려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
- 회원가입문의 T.02.3445.4777 www.snoble.com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48-7호 로데오플라자 7F •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 강남080045

대한민국 1%의 결혼정보클럽-

S. Noble



安復熏·申允植·蔣鳳圭·李相鎬·姜信雄·鄭敬泰·申順澈



梁佶炫회장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동창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신임 회장에 姜信雄동문 선출

진주시부동창회

진주시부동창회(회장 申順澈)는 지난 4월 25일 경남 진주시 북경장에서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경상대 중어중문학과 姜信雄(중문64-68) 명예교수를 선출했으며, 부회장에 金法

煥(치의학79-85)동문, 감사에 申順澈(의학62-68)동문, 총무에 安復熏(치의학80-86)동문을 선임했다. 또 부회장에 朴鍾衍(법학79-83)동문을 재선임했다.

姜회장은 취임사에서 “다른 지부동창회에 비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봄·가을 산행 행사와 골프·바둑 동아리 등을 만들어서 동창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학금 4백만원 전달

춘천지부동창회

춘천지부동창회(회장 林正根)는 지난 5월 14일 춘천시내 중식당 회영루에서 2013년 정기모임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安幸濤(사법87-92)이사, 李柱弘(외교88-93)사무국장, 權英重(화학공학74-81)·鄭泰洙(농업교육81-89)·朴元太(농생물84-88)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이다솔(사회교육09입), 오예준(인문계열11입), 허남주(중문12입), 손승범(생명과학13입) 등 재학생 4명에게 각각 1백만원을 전달했다.

동창회는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모교에 진학한 지역 출신의 재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학부 재학 4년간 매년 1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李世漢회장 연임

AIC동창회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世漢)는 최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李世漢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동창회 발전을 위해 애쓰는 동문들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모교 행정대학원 金俊基원장이 축사를 했다.

이어진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李世漢회장과 2명의 감사에 대한 재선임을 가결했다. 또 2012년 결산을 승인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7대 회장에 梁佶炫동문 선임

제주지부동창회

제주지부동창회(회장 金富燦)는 지난 5월 9일 제주시 칼호텔에서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원 개선을 통해 제7대 회장에 제주대 윤리교육과 梁佶炫(정치74-83)교수를 선출했다.

梁회장은 취임사에서 “동문 간의 친목 도모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통해 동창회의 활력을 모아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 제주지역의 문화

활동 지원 및 회원 수첩 발간, 등반 행사 등 동창회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姜仁淳·楊網貽감사 뽑아 포항지부동창회

포항지부동창회(회장 黃基錫)는 지난 4월 15일 포항시 푸른바다회관에서 10여 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감사에 姜仁淳(경영79-83)·楊網貽(본명 楊培根 금속공학82-88)동문을 선출했다.

검찰 동문 환영회 대전·충남지부동창회

대전·충남지부동창회(회장 吳應準)는 지난 5월 6일 대전시 둔산동 일식당 지중해에서 동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 동문 환영회를 개최했다.

吳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4월 대전지역으로 부임하신 것을 지역내 6천여 동문을 대표해 축하한다”며 “모교의 명예를 걸고 이 지역의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전지방검찰청 李健周(사법82-86)검사장, 柳源根(공법85-89)·安美英(불문85-89)·李星圭(사법92-97)부장검사에게 취임 축하패를 전달했다.

한편 14일 대전시 유성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미국 워싱턴주 상원 愼昊範부의장을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은 吳應準회장을 비롯한 동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적을 이룬 꿈’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美)

가격표를 떼지 않은 이유

남자가 새로 산 정장을 입고 면접장에 앉아 있었다. 정말 최선을 다해 꾸민 것처럼 보였다. 이 남자가 평가를 설명하려고 팔을 내렸을 때, 그와 면접관은 정장 소매에 가격표가 여전히 붙어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면접관: 무척 긴장을 했나보군요. 정장 가격표도 안 떼 걸 보니...

남자: 그게 아니고..., 면접에서 떨어지면 이 옷을 반품하려고요.

손님

다섯 살짜리 아들을 둔 한 남자가 매일 새벽 출근하는데다 귀가가 너무 늦어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남자가 출근하려는데 모처럼 일찍 일어난 아들이 눈을 비비며 말했다.

“근데 아빠! 왜 요즘엔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안 와요?”

(독자제보 환영)

의미있는 침묵

모녀는 부업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고 부자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갑자기 접시들이 왈칵 떨어지면서 부업 바닥

대표이사 김혜정 [82入 독어독문]

좋은사랑만다 결혼해 듀오

성혼회원수 26,670명 (2013년 4월 22일 기준) | 점유율 63.2%, 매출 1위 (주요 4개 업체간 2010년 매출액 기준)

*성혼회원수는 듀오에 가입된 남녀회원 간의 누적 성혼수입니다(1995.2.14~2013.4.22)
*위 그래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의결서(2012.3.29)에 들어있는 표 '주요 결혼정보업체의 일반연령'의 수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창원·수원·천안·전주·강원·제주·LA·뉴욕·뉴질랜드

매 듀오
www.duo.co.kr

한국대표결혼정보회사
15개
-8333

진주지부동창회 姜信雄회장
(경상대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

진주지부동창회는 지난 4월 25일 정기 총회를 개최하고 경상대 중어중문학과 姜信雄(중문64-68)명예교수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姜회장은 “초창기 회장들을 본받아 다시금 신규 회원 모집을 위한 동창회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회장을 맡으신 소감은.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여 동창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감이 큼니다. 부족하지만 명예로운 회장이 됐으니 사명감을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총동원해 최선의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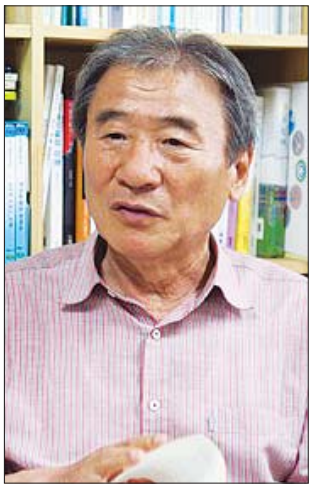
－ 동창회 회원수는.

“현재 동창회 회원은 4백여 명입니다.

초창기에는 동창회 분위기가 매우 역동적이었으나 중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 들었습니다.”

－ 추진할 행사가 있다면.

“크게는 6월 중순과 10월 말경 야유회가 계획돼 있으며, 12월에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



“지역 신문·방송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동창회의 가치를 알릴 것이며,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리더인 동문들의 도움을 받아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신규 회원들이 동창회 활동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할 것입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

“다양한 행사로 신규 회원 늘릴 터”

근자에 와서 주춤해진 바둑·골프·산행 등 동아리 행사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 동창회 활성화 방안은.

שמ 해주신다면.

“명문대 출신이란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존 의식이 높아져서 단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바빠살아가는 동문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창회 활동을 통해 동문 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며 돈으로 살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진주지부동창회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모든 동창회가 활성화되길 바라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동문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참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 조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梁회장은 진주고와 모교를 졸업한 후 프랑스 파리 제7대학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상대 인문대학장, 대한중국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상대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 및 한국국제대학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美)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제주지부동창회 梁佶炫회장
(계주대 윤리교육과 교수)

제주지부동창회는 지난 5월 9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주대 윤리교육과 梁佶炫(정치74-83)교수를 제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梁회장은 “동창회장을 맡는 데 따른 책무감에 어깨가 무겁지만 기초를 닦으면서 동창회의 존재 의의와 참여의 보람을 높이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동창회 현황은.

“전체 회원 수는 3백여 명이 됩니다. 그동안 회원수집 발간, 제주지역에서 모교에 입학한 신입생 환영회, 회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오름 등반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동문 간의 연대 의식이 부족하고 또 바쁜 일정 가운데 동창회까지 나가느냐 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화단체나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문화인들을 지원·격려하면서 동창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 동창회 활동의 재미는.

“다양한 전공의 졸업생들과 함께 각기 다른 생각과 삶을 공유하면서 세상살이의 다양성과 복잡다단함을 맛보는 데 있다고 봅니다.”

“지역 문화단체 지원에 앞장”

적지 않아 기대만큼 동창회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임원은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역대 동창회장, 국회의원, 대학교 총장 등을 지냈던 15명의 동문을 고문으로 위촉해 동창회 운영에 대한 지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과대별 대표들로 구성된 부회장단에서 연락 및 행사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에 韓昌勳(수의학77-81)·梁永哲(행정학83졸)·吳用德(치의학78-84)·吳成辰(공법83-88)동문이 선출돼 동창회 운영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회원들이 단편적인 울타리 내의 이해관계에만 얽매이지 않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사회 기여회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회비를 모아 제주지역의 문

－ 건강 관리법이 있다면.

“제주시 신제주에 위치한 수목원에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가 산책하고 명상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동문들에게 한 말씀.

“모교는 국내 최고의 대학이지만 그에 걸맞게 국가에 기여하는 외연 확대가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받은 만큼에는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3분의 1, 혹은 10분의 1이라도 사회에 환원하려는 폭넓은 헌신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梁회장은 제주시 제주제일고와 모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주국제협의회 사무국장, 동북아시아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세계평화외교법도민실천협의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美)

신임 동창회장 인터뷰

GLP동창회 趙鏞根회장
(세무법인 석성 대표)



국제대학원 글로벌리더십과정(GLP) 동창회는 지난 3월 26일 세무법인 석성 趙鏞根(19기)대표를 신임 회장에 선출했다. 趙회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나누고 베풀 줄 아는 동창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취임 이후 근황은.

“6월에 수료하는 27기 후배들을 비롯

“앞으로 모든 행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동창회 정기행사인 골프대회의 수익금을 기부하고 대회 후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급식단체인 정량리 ‘밥퍼’에 봉사활동을 나가 1천2백여 명의 독거노인 및 노숙인에게 급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많은 회원이 동창회를 통한 나눔활동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서 나눔문화를 정착시키고 싶습니다. 나눔활동의 자리를 늘리는 것이 동창회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동문들에게 바라는 점은.

“기존에 모교가 가지고 있던 맹점인

“소외계층 위한 봉사활동 전개”

해 각계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 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동창회가 기초공사였다면 저는 내부 인테리어까지 완성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동창회에 접목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 동창회 운영 덕목은.

“현재 1천3백여 명의 회원이 있으며 대다수가 기업의 CEO들입니다. 지금까지 동창회는 친목 도모 위주의 활동에만 전념해 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친목도임으로서의 동창회는 발전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를 이끌어 가는 리더들의 모임인 만큼 리더로서의 덕목을 지키는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Servant Leadership’의 실천, 즉 나누고 섬길 줄 아는 동창회를 만들겠습니다.”

－ 동창회 운영을 위한 계획은.

엘리트주의, 이기주의적인 분위기들이 바뀌길 바랍니다. 내공은 갖추되 밖으로 표출할 때는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동문들이 됐으면 합니다.”

－ 세무법인 석성을 소개해 주신다면.

“석성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연 매출액의 1%를 재원으로 석성장학재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교 국제대학원 학생들에게도 도움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사회 환원의 계기는.

“어려서 심한 가난을 경험해 왔고 그 힘듦을 알기 때문에 더 진실한 마음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趙회장은 천안함재단 이사장, 밥퍼 명예본부장, 석성장학회 회장, 석성일만사랑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활발한 사회 환원을 펼치고 있다. (邊)

KOLON SPORT

www.kolonsport.com

WAY TO NATURE

KOLON SPORT 40TH ANNIVERSARY



코오롱스포츠 40주년을 기념한
김지운 감독의 단편영화 '사랑의 가위바위보'를
지금 모바일로 감상해보세요.

윤계상 이소재 패치 재킷
박신혜 프로텍터 포인트 재킷

화제의 동문

국민행복기금 朴炳元이사장



서민층이 겪고 있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개인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된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신용회복지원기관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고 초대 이사장에 朴炳元(법학71-75)동문을 선임했다.

朴동문은 “정부의 대표적 정책과제인 국민행복기금의 이사장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지난 30여 년간 공직과 금융 분야에서 일한 경험으로 보다 많은 서민들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업·창업 지원 활동 강화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와 대부업체(총 4천1백79개 신용지원 협약 기업) 등을 통해 연체 기간이 6개월 이상, 채권 규모가 5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인 채무자에게 채무 감면 및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또 고급리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연체채무자에게 취업 시까지 채무 상환을 유예해 주는 한편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연체자가 국민행복기

금에서 채무 조정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1일까지 국민행복기금을 접수한 신청자가 11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참여도가 높았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주채무자뿐만 아니라 보증인에게도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 금융 시장의 현안인 가계부채 해소와 서민 금융의 새로운 기조를 정립해 경제 부흥에 디딤돌로서 일조하고 싶습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 창출 능력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이 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무

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및 중소기업청의 희망컨설팅 사업과 연계해 취업과 창업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또 이들의 다중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최대한 한곳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채무 조정 약정을 맺을 수 있게 도와주고 이들의 자활 의지를 북돋아 주겠습니다.”

가계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장년 실업문제는 개인의 소득 하락으로 인한 빈곤층 양산, 국가의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축소와 인적자본 형성

정책의 고용 영향을 점검한 뒤 시행하는 고용영향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朴동문은 우리나라가 제조업 기반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을 비롯한 IT, 의료,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수출지원 전략 마련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보다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제안

“두바이 같은 경우 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국제금융센터(DFSA)를 설립하고 전 세계 기업들을 유치해 청장년을 위한 고급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한국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건설로만 그칠 게 아니라 해외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먼저 양보하는 자세를 갖춰 선진 서비스 국가를 달성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해 경복궁 인근 7성급 호텔 건립 사업이 몇 년째 중단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표명한 朴동문은 “경제 발전을 위해 규제부터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가치 인식 제고를 위해 정부관련 정책의 지원 및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朴동문은 제17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차관,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美)

가계부채 해소·서민금융 기조 정립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통해 일자리 창출

朴喜載 R&D전략기획단장

지난 4월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이자 SNU프리스전 대표를 맡고 있는 朴喜載(기계설계79-83)동문이 국가 연구·개발(R&D) 전략기획단장에 취임했다. 독립적인 조직 운영과 연간 3조5천억원 예산을 관할하며 국가 R&D전략을 총괄하는 자리에 오른 朴단장을 만나 향후 계획 등을 들어봤다.

“처음 단장직을 제의 받았을 때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중요한 직책이고 과연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미 교수와 CEO 직책을 맡고 있었기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국가 R&D 전략 2기에 큰 미션이 있었고 그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다는 자신을 가지고 수락했습니다. R&D전략기획단은 쉽게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전략을 제시해주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 응용기술에서의 국가적인 R&D 로드맵을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매겨 진행하는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벤처 경험 살려 예산 집행

임기 3년의 R&D전략기획단장은 국가 최고기술책임자(CTO)로 불리는 자리이다.

“전략기획단은 40여 명의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면면은 신산업, 주력산업,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박사급 이상의 공정한 브레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인 ‘히든챔피언 기업’이 1천3백여 개나 존재한다.

기업의 R&D 의식 바뀌어야

“기업에서 R&D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R&D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남으면 한다는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기업들이 R&D에 대한 의식구조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기획단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朴단장은 모교 공대 교수직과 SNU프리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지원이 절실

이론과 현장경험 겸비한 최고 책임자

한 해 3조5천억원의 예산을 관할하며 국가 R&D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朴단장은 큰 예산을 다루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의 R&D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돼야 하며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D전략기획단의 가장 큰 타이틀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이다.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의 R&D비율은 1.5% 남짓. 朴단장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은 5~6%가량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수출주도형

사전 대표에 이어 세 번째 직업을 가지게 됐다.

“각기 다 다른 직업이지만 서로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직업 다 즐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CEO는 학교의 실험실, 연구실 안의 기술들을 시장이라고 하는 현실에서 진검승부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현재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것은 단장직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회사의 작은 연구 분야였지만 이것은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국가가 뭘 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상당히 바쁘지만 조만간 더 큰 성취감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제의 동문

연구와 사업, 둘 다 성공한 노하우를 묻는 질문에 朴단장은 “외형적으로는 다르지만 속으로는 연구와 사업 둘 다 같은 쪽이기에 시장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며 연구와 사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봐주길 바랐다.

朴단장은 IMF가 한창이던 1998년 모교 실험실 1호 벤처기업 SNU프리스전을 창업해 큰 성공을 거뒀다.

“기실 IMF 위기는 원자재의 수입을 대체할만한 기술개발을 하지 못해 수십 년간 무역적자가 누적되면서 터진 겁니다.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지 못해 IMF가 온 것에 대해 공학도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반드시 할 수 있다’라는 생각과 기술력을 가진 R&D인력과 함께라면 전 세계 어느 곳과 경쟁해도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끝으로 朴단장은 모교 공과대학 후학들에게 바라는 점을 묻자 오늘 인터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말을 이어갔다.

“엔지니어로서 리더십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기존의 미국, 유럽시장에서 벗어나 미래의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인 중국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대 졸업생들이 좀 더 도전적인 기업이 정신을 가졌으면 합니다.” (邊)

RushCash

아프로파이낸셜그룹 차순관 수석 부사장 [30회 경영학과], 정길호 부사장 [43회 경제학과], 정성순 상임 감사 [71회 AMP]



나눌수록 불어나는 러시앤캐시의 행복나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 5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던 지난 해, 첫 행복나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돕는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까지 더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600명에게 더 큰 행복을 전합니다.
주변에 등록금을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오직 여러분의 추천만으로 등록금 전액을 해결해드립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고 싶으니까,
러시앤캐시는 더 많이 나누겠습니다.

러시앤캐시 2013 행복나눔 등록금 장학생 모집

| 후원내용 | 600명에게 2학기 등록금 전액
| 추천방법 | 장학회 홈페이지(www.happyrush.org)에서 타인 추천 또는 본인 신청
| 추천기한 | 2013년 7월 18일까지
| 문의전화 | 02-498-7979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러시앤캐시
행복나눔

“일·가정 양립제도 활성화 위한 환경 조성돼야”

동문들 찾아서

여성가족부 趙允旋 장관



대담 : 李相起(아시아N 대표) 논설위원

— 첫 여성 대통령 시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법조인, 정치인의 삶을 살다 첫 행정업무로 큰 직책을 맡아 기대감뿐만 아니라 부담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대한민국의 첫 여성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첫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중임을 맡게 돼 참으로 영광스럽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성 대통령 시대에 남성과 여성이 보다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고, 국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취임사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리나라의 일과 가정의 양립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잘 마련돼 있지만 민간 기업에 근무하는 대다수 여성, 특히 비정규직 여성은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여성이 육아부담으로 중도에 직장을 그만둔 여성 고용률은 50% 수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제도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수여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은 정시 퇴근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족사랑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 ‘미래 여성 인재 10만 양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여성 인력의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공공분야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관련 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해 공직·교직·공공기관별로 목표제, 평가 등의 실효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으로의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 관계 부처 국장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양성평등TFT’를 구성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범정부적으로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6월 중 여성 인재 아카데미를 설치해 교육기회가 적은 중소기업, 공공부문, 전문직 중간관리자층 여성을 우선 대상으로 관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각별한 신임...“부처간 코디네이터 맡아달라”

‘성폭력 예방 교육의 원년’...여성 인재 10만명 양성

— ‘9.3%에 불과한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2017년까지 15%로 늘리겠다’고 하신 말씀도 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지요.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각종 고시의 여성 합격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공직 사회의 여성 참여는 어느 분야보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아직도 9% 수준이며 고위공무원 비율은 4%에 불과합니다. 사회 전반의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공직사회에 선도적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치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를 통한 이행 점검을 강화해 매년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가족을 쉽게 만나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차

차權惠대통령은 여성가족부 趙允旋(외교 84-88)장관을 임명하며 “趙의원은 뭐 하나를 하면 깊이 들어파더라. 부처에 가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대선 기간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 차權惠후보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며 호흡을 맞췄다.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거쳐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되기까지 그는 차대통령에게 가장 신임 받는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차대통령은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趙장관에게 “여

성의 임신부터 출산·육아 등 전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만들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 여성 인력 문제는 전 부처와 연결돼 있으니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조율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본보는 지난 3일 趙장관을 여성가족부 접견실에서 만났다. 파리에서 열린 OECD 회의에 참석했다 전날 귀국한 그는 이날도 10개에 가까운 일정을 소화하느라 피곤한 기색이 엿보였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다.

• 趙장관은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나 세화여고를 졸업하고 1988년 모교외교학과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 활동을 시작으로 미국연방방화소법원 인턴, 한국씨티은행 부행장 겸 법무본부장, 한국전쟁기념재단 부이사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 대외원조 홍보대사 등을 역임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거쳐 지난 3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주요 저서로는 ‘미술관에서 오페라를 만나다’, ‘문화가 답이다’ 등이 있다.

각국 참가자들과도 만나 우리나라의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OECD 포럼 관련한 내용들을 읽어보다 너무나 놀라고 기뻐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던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가정 양립제도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 정보를 공시하도록 추진했는데, OECD에서도 상장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공시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방문에서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인 여성의 대표성 제고와 일·가정 양립이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여성의 고용률 제고가 핵심적인 관건이라는 점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이런 점에서 ‘젠더’ 이슈가 사회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도 중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정부가 이런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추고 또 어떤 부문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뿌듯한 일입니다.”

— 동창회와 동문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

“많은 훌륭한 동문들이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계시다 보니 저 역시 사회생활을 해 오면서 큰 격려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점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후배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우정이 쌓여야 동창회도 굳건히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멘토와 길잡이가 되고,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밤하늘의 별이 됐으면 합니다. 저 또한 제가 선배님들로부터 받은 도움과 격려를 후배들에게 대신 갚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趙장관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꾸는 꿈이 있는데, 학력고사 전날인데 수학이든 수학, 세계사면 세계사 한 과목을 아예 공부하지 않은 꿈이나 사법시험 채점이 무효라는 통보를 받는 등의 꿈을 꾸다”며 “대통령 말씀을 듣고 그날 밤에 또 그런 꿈을 꿔다. 이번에는 학력고사 전 과목이 공부 안 돼 있는 꿈을 꿔다”고 했다. 그는 “관성대로 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해달라는 대통령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귓전에 맴돈다”고 했다.

(사진= 차薪載기자·정리= 林香默기자)

별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 대책마련이 있으신지요.

“최근 우리 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으로 볼 때 필연적인 움직임이며 또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요. 다양성과 개방성이 중요시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차이’, ‘다름’은 ‘차별’의 대상이 아닌 ‘경쟁력’을 높이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다문화’라는 용어가 그 자체로서 남을 배려하고 함께 하는 따뜻한 성장을 지향하며, 차이에서부터 아름다움을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과 능력을 내포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용어가 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 최근 OECD 포럼을 방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5월 마지막 주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포럼에 참석해 연설도 하고,



洪起玄교무처장, 자연대 金明煥학장, 의대 姜大熙학장, 평의원회 朴杉沃 前의장, 사회대 梁承穆학장, 상대동창회 成耆鶴회장, 본회 林光洙회장, 金鐘燮부회장, 평의원회 朴鍾根의장, 李俊植연구부총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부회장, 인문대 裴永洙학장

아시아연구소 개관

새 연구 인프라 구축에 첫발

모교 소식

모교는 지난 5월 29일 관악캠퍼스에서 아시아연구소(소장 林玄鎭)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孔大植·金鐘燮부회장, 상대동창회 成耆鶴 회장을 비롯해 모교 평의원회 朴鍾根의장, 李俊植연구부총장, 보

직교수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과학대학 梁承穆학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지향해온 미국이나 유럽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 것은 사회과학대학뿐만 아니라 모교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연구소 林玄鎭소장은 “앞으로는 지식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창출해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아시아 연구를 선도할 연구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

록 격려해 달라”고 말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에서 “연구소 신축 개관이 우리나라 사회과학 연구 수준의 비약적 강화를 돕고, 더 나아가 아시아 중심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날 세왕종합건설 李漢宇대표·나 훈 현장소장, 대국건설산업 邢南淳대표·한화명 차장, 다음건축설계사무소 신동재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모교 시설기획과 김경호 과장, 김기업·김용인·김택균·민병관 주무관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삼영화학 李京姬전무, 朴鍾根의장, 고려애자 권영무 회장, 柳鍾珮관악구청장, 吳然天총장, 李碩俊이사장과 양문희 본부장 부부, 朴枝香중앙도서관장, 邊昌九교육부총장, 任廷基기획부총장

관정도서관 신축 기공

열람실 4천석 ... 내년 7월 완공

모교는 지난 5월 29일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옆 신축부지에서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모교 吳然天총장, 평의원회 朴鍾根의장, 邊昌九교육부총장, 李俊植연구부총장, 任廷基기획부총장, 朴枝香중앙도서관장, 발전기금 金炯周상임이사, 관

정이종환교육재단 李碩俊이사장, 柳鍾珮관악구청장 등 1백여 명이 참석했다.

김경호 시설기획과장의 경과보고 및 사업개요를 시작으로 吳然天총장 식사, 李碩俊이사장 및 柳鍾珮관악구청장 축사, SNU남성중창단의 축하공연, 시삽 순으로 진행됐다.

중앙도서관과 자연과학대학 사이에 위치하는 관정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7층(연면적 2만7천3백24㎡) 규모로 4천석의 열람실, 공동학습실, 멀티미디어실, 스터디가든, 컨퍼런스룸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2014년 7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교는 관정이종환교육재단 李鍾煥 명예이사장이 도서관 신축에 필요한 비용 6백억원을 기부함에 따라 도서관 명칭을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으로 지었다.

‘발전공로상’ 시상 공과대학

공과대학(학장 李愚日)은 지난 5월 15일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제23회 ‘발전공로상’ 수상자로 진성TEC 尹友錫(공산63-67)회장을 선정, 시상했다. 尹회장은 2006년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올해의 테크노 CEO’상, 2011년 무역의 날 ‘1억불 수출탑’과 ‘금탑산업훈장’, 2008년 ‘자랑스러운 공대 동문상’ 등을 수상했다.



李愚日 학장·尹友錫 회장

또 현재 공대동창회장을 맡아 동창회 활성화 및 후학 지원에도 앞장서며,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후배사랑제자 사랑 장학금’ 5억원을 쾌척했다.

본회서 체육기금 전달 야구부 등 2천5백만원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5월 3일 모교 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모교 야구·미식축구·럭비·축구·핸드볼부에 5백만원씩 총 2천5백만원을 전달했다.

1999년부터 노후된 장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팍팍을 흘리고 있는 모교 야구부와 미식축구부를 지원해온 본회는 2003년 럭비부, 2007년 축구부, 2008년 핸드볼부를 추가 지원해 오고 있다.

총장배 구기대회 개최

축구·농구·테니스 등 실력 겨뤄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4일까지 모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과 운동장에서 2천5백여 명의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및 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총장배 구기대회가 진행됐다.

먼저 지난 5월 6일 모교 金永梧(토목공학85-89)학생부처장과 金善振(체육교육77-81)체육부장 등 주요 인사와 재학생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이 열렸다.

金永梧학생부처장은 개회사에서 “구기대회를 통해 얻게 될 상호간의 공감과 소통은 어디서도 배울 수 없고 또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축제의 장에서 흥미진진하게 뜻하신 성취를 이루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구·야구·농구·테니스·탁구·배드민턴 경기로 진행된 이번 구기대회 시상식은 종목별로 경기 마지막 날에 치러졌다. 배드민턴 시상식은 5월 7일, 농구는 5월 8일, 테니스·탁구는 5월 10일, 야구는 5월 16일, 축구는 5월 24일에 각각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 배드민턴 남자단식 우승을 차지한 신성수(기계항공13입)군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와 기분이 좋다”며 “다른 학우들도 배드민턴의 매력에 빠져 다음 대회 때는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하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제6회 종합마라톤대회

교직원·학생 2백13명 10km 코스 완주

지난 5월 16일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제6회 종합마라톤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에는 재학생과 교직원 등 총 2백82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그중 2백13명이 완주했다. 참가자들은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자연대와 농생대-신공학과 정삼-기숙사 삼거리-후문-인현초등학교를 반환점으로 총 10km 코스를 달렸다.

이날 경기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학생조 : 조현석(지구과학04입)·이보영(정치외교09입) ▲교수조 : 경제학부 李相承(경제82-86)교수 ▲직원조 : 생활협동조합 양형모·이정애



‘청춘 노릇’ 봄축제 열려 각종 게임·공연 즐겨

모교 총학생회 산하 ‘축제 하는 사람들(축하사)’(회장 정운영 인류09입)은 지난 5월 14~16일 관악캠퍼스 본부 앞 잔디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지겹지 아니한가, 청춘 노릇’을 주제로 봄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바쁜 일상과 고뇌에 짓눌린 청춘을 풍자한 ▲전 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만보기 달고 ‘전 번’ 흔들기) ▲뒤지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보물찾기) ▲가창력 뽐내기) ▲마시니까 청춘이다(술 블라인드 테스트) 등의 게임으로 구성됐다.

이번 축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회에서 1천만원을 후원했다.

‘Data Curation’展 미술관

미술관(관장 權寧傑)은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18일까지 ‘Data Curation’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큐레이션이 가지는 ‘선택’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디자이너, 작가, 관람객이 어떤 방식으로 나눠 가질 수 있는지 국내외 18명의 작가 30여 작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난 23일 열린 개막 행사에는 權寧傑미술관장과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센터 고지마 히로유키 소장을 비롯해 산업공학과 趙成竣(산업공학79-83)교수, 디자인학부 金修楨(산업미술83-87)교수, 경영학과 金祥薰(경영84-88 미술관 실무위원)교수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美)

모교 李明賢·金貴賢교수 부부

5백평 상당의 전원주택 기부

모교 철학과 李明賢(철학60-64) 명예교수와 기학과 金貴賢(기약69입) 교수 부부가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5백평 상당의 전원주택을 모교에 기부했다.

모교는 지난 5월 6일 吳然天총장, 李明賢·金貴賢 교수 내외를 비롯해 邊昌九 교육부총장, 洪起玄교무처장, 李在影학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李明賢·金貴賢 학술기금’ 협약식을 가졌다.

李교수 부부는 “퇴임 후 머물러 온 소중한 주택을 보다 가치 있게 사용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吳然天총장, 李明賢명예교수, 金貴賢교수

모교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주택을 모교 구성원의 교육 및 연구 활동, 세미나, 학술행사 개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다.

李교수 부부가 기부한 전원주택은 북한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강변에 자리잡고 있다.

자연대 李日海명예교수

수목 5종 44그루 기증

모교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 李日海(수학46-51) 명예교수가 모교 녹지공간 개선을 위해 수목 44그루를 기증했다.

모교는 지난 4월 11일 吳然天총장과 李日海명예교수 부부를 비롯해 발전기금 安芝賢모금본부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갖고 감사패를 전달했다.

李동문은 “손수 정성을 다해 가꾸어 온 나무들이 가치 있게 쓰일 길 바라는 마음에서 모교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며 “평소 학교



李日海명예교수 부부

를 위해 좋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런 것 같아 뜻깊다”고 전했다.

기증된 수목은 주목·섬잣나무·단풍나무·목백일홍·철쭉으로 현재 모교 교수아파트에 이관됐다.



발전기금 기부자 1천6백명 초청

제3회 ‘Spring Concert’ 개최

모교 발전기금(이사장 吳然天)은 지난 5월 23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기부자와 동반가족, 학내 구성원 등 총 1천6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스프링 콘서트를 열었다.

‘Musical Highlights’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공연에는 음대 金泳律(기약76-80)학장이 지휘하는 모교 윈드앙상블과 남성중창단을 비롯해 국악과 梁景淑(국악73-79)교수가 출연해 다양한 프로그

램을 선보였다. 또 뮤지컬 배우 金素賢(성악94-98)동문과 가수 보아 씨가 특별 출연해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한 ‘오페라 라트라비아타’와 기부자 및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Join Us’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사회와 소통해 온 발전기금은 앞으로도 문화역량을 활용해 사회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美>

제학생의 소리



학생들과 소통하는 총학생회

지난해 11월 55대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돼 올해 4월 재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저는 두 번의 선거에 참여해 선거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투표율 미달로 인한 낙선이라는 상황을 곱씹으면서 모교 학생 사회의 현주소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소통을 강조하며 출마했기에 투표율 부족이라는 결과는 첫째로 저희 선거운동본부 총론의 가장 근간이 됐던 이야기가 학생들과 공감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선분들도 출마했던 선거였기에 연장투표까지도 가지 못할 정도의 투표율이 나왔다는 것은 더 이상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존재 필요성이 학생들에게 크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두 번째로 도전한 이번 재선거를 준비하면서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신뢰를 회복하는 과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소통과 사업 추진 모두에서 가능한 모든 학우들을 포괄하는 학생회, 학생들과의 벽을 허물고 가까이 다가가는 학생회를 만들



다는 목표를 세우게 됐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순환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학생들과의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민주적인 총학생회의 상을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림전철 노선이 지난해 3월 확정됐습니다. 현재 종점으로 결정돼 있는 관악문화관·도

서관에서 더 연장해 캠퍼스 내부에 역을 유치할 수 있다면 부족했던 학내 교통수단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수님, 동문들과 학생대표들이 모여 추진단을 구성, 경전철 연장을 이뤄내기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金亨來(신림환경08입)

제55대 총학생회 회장

저희 총학생회에서는 산하기구로 TF를 두고 학생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정적으로 실행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우리’의 학교를 위해 모두가 의기투합한 사안이니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선배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가능성의 릴레이 SK telecom

서울 중곡재일시장 애농농수산물 하영순님

전통시장을
행복시장으로

!SK텔레콤과 전통시장의 행복동행!

기술은 풍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발길이 뜸한 전통시장을
손님이 줄을 잇는 행복시장으로

기술은 표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단했던 시장 사람들의 얼굴을
누구보다 활기차고 행복한 얼굴로

앞서 가지만 앞만 보고
달리지는 따뜻한 기술 -
SK텔레콤의 기술은 행복동행입니다

S&T 해안누리 국토대장정

전국 해안길과 내륙길 총 2,755km 완주를 목표로 닦을 올린 <S&T 해안누리 국토대장정>
불굴의 도전정신과 자기희생으로 새로운 도전의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S&T 해안누리 국토대장정>은 소통과 화합으로 S&T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펼쳐나갈 것입니다.



S&T

남들은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맨 앞에 두는 것이 보수라면
대림은 보수적입니다
남들은 고지식하다고 합니다
편법을 모르고 정도만을 걷는 것이 고지식이라면
대림은 고지식합니다
원칙 약속 기본
그 안에 혁신의 길이 있습니다

기본이 혁신이다

DAELIM

콩트 릴레이

카페 탕고

金 河 鏡(국어교육64-68)

본명 金美順, 소설가



카페 탕고는 수봉산 진입로에 위치한 작은 카페다. ‘SINCE 1995’가 말해주듯 오영철은 이 카페에서만 20여 년의 청춘을 고스란히 쏟았다. 이런 외골수 같은 주인의 고집과 철학은 건물 외관이나 내부 장식에 고스란히 배어들어 한눈에도 주변의 다른 새 건물들과 차별화됐다. 그렇다고 그가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고 옛것만 고집하는 구태 의연하고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패셔니스타로 청바지와 빨간 티셔츠, 머리엔 검은 두건을 쓴, 튀는 패션으로 주위 시선을 한 몸에 모았다. 최근엔 수봉산 일대 뉴타운건

구를 기울였다.

몇 년 전이었다. 11월의 마지막 주말 콘서트가 끝난 뒤 오영철은 손님도 없고 해서 혼자 아코디언 연습을 하고 있었다. 처음 콘서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자신이 직접 무대에 서려고 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야 뭐 하고 가볍게 생각했다. 근데 아니었다. 규모는 작아도 종업원 없이 혼자 뛰다보니 24시간도 모자랐다. 도무지 연습할 짬이 안 났다. 그렇다고 ‘완벽한 무대연주’라는 원칙을 깨고 싶지는 않았다. 전문 연주자를 초빙했으나 그마저 자꾸 사람이 바뀌는 통에 골치가 아팠다. 그날도 그만두겠다는 연주자

자 노인은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기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고비에 서 있다, 그런데 이 막중한 순간에 느닷없이 아코디언 소리가 발길을 막았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초면에 누구에게 이런 무례한 억지를 부려본 적이 없는데, 웬지 자꾸만 염치 불구하고 조르게 된다. 그러면서 노인은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자신의 심경을 이해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는 게 아닌가.

순간 오영철은 노인의 말에서 뭔가 짙박함이 느껴졌다. 오죽하면 저렇까. 노인의 진심이 통한 건지도 모른다. 더 이상 거절하기도 민망하고 끝까지 거절했다가는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좀 부족하면 어쩌랴.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을 못 들어주랴. 오영철은 눈을 지그시 감고 아코디언을 끌어당겼다. 그리고 탕고 ‘라 콤파르시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연주가 끝날 무렵 오영철은 고개를 들고 노인을 쳐다보곤 깜짝 놀랐다. 처음 들어왔을 때의 그 얼굴이 아니었다. 얼굴은 불그레 상기되고 눈에서는 생기가 반짝였다. 한 열 살은 더 젊어보였다. 그뿐이 아니었다. 연주가 끝나자 노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열렬하게 박수를 치며 소년처럼 환호성을 질렀다. 더 놀라운 것은, 입은 환하게 웃고 있는데 눈에서는 붉은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눈에 진심으로 감동했다는 게 느껴졌다.

명연주도 아닌데 열화와 같은 박수갈채에 눈물까지 흘리는 감동이라니... 오영철은 분에 넘치는 반응에 민망하기도 하고 잠깐이나마 노인을 원망했던 게 부끄럽기도 했다. 연주하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는 게 진정한 음악이라고 했던가.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노인을 보면서 오영철 역시 위로 받았고 행복했다. 비로소 진정한 음악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경험한 것 같았다.

오영철은 그 뒤부터 주말마다 무대에 올랐다. 노인과 행복의 공감을 통해 진정한 음악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나 할까. 그러던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왔다. 발신인 이름은 엄영수, 바로 그때 그 노인이었다.

“저는 정년퇴직 후 아내와 함께 귀농해 유기농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농원이 자리를 잡기도 전에 아내의 암 말기 소식이 들렸습니다. 부랴부랴 농원 문을 닫고 발이 닳도록 전국의 병원과 요양원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끝내 올 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은 썰렁하기 그지없고 너무 외롭고 쓸쓸해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눌렸습니다. 무엇보다 밤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몇 달 동안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독한 술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닐 가방에 나일론 줄을

한 묶음 넣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나뭇가지에 나의 마지막 생명을 바치려던 겁니다. 나무 밑에 시신을 묻어 수목장도 치르는데, 나뭇가지에 시신을 의탁한들 어떠랴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날 제 발길은 카페 앞에서 멈춰 버렸습니다. 빠르고 경쾌한 탕고의 선율이 쿵쿵 울리면서 무겁고 침울한 죽음에 억눌렸던 저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여지고, 발이 저절로 까딱까딱 박자를 맞추게 되더군요. 딱딱하던 머리가 부드러워지고 차가웠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온몸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삶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철십 평생 음악이 뭔지도 몰랐고 느낄 줄도 몰랐습니다. 음악이란 게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바로 옆에 가까이 있었는데도 까맣게 모른 채 철십 평생을 살다니, 순간 울컥 목구멍으로 뭔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몸은 음악에 맞춰 흔들리는데 가슴은 칼로 저미듯 아파왔습니다.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모르는 게 이렇게 많다니요. 알아야 할 새로운 게 남아있다니 참 놀랍습니다. 그날 산에 올라가 목을 땄더라면 음악을 모른 채 죽었을 테지요. 그 생각을 하니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음악을 알고부터 세상이 그전과 엄청나게 달라 보였습니다. 세상은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구나. 그런 세상을 굳이 서둘러 떠날 필요가 있을까. 번덕스러운 우연 탓에 죽음의 계획은 자연스럽게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다음 달 아니면 내년, 혹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이렇다면 선물 받은 것, 공짜로 덤으로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선물 받은 삶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 날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고 합니다. 특히 죽음의 문턱에 서 본 사람이라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 진정으로 뭘 의미하는지 알 거라고 합니다.

제가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생전 몰랐던 음악을 알고 직접 연주하면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변하는 거구나.”

(추신 : 2주일 전 아코디언 강습소에 등록했습니다. 언젠가 카페 탕고에서 연주할 그날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연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영철은 편지를 접으면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점엔 나도 뉴타운을 찬성했습니다. 결핍하면 문 닫고 싶단 말을 입에 달고 살던 때였지요. 근데 노인을 만난 뒤로 그 입버릇이 싹 사라졌습니다. 사실 그전엔 왜 카페를 하는지도 몰랐고 생각해보는 적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죽이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노인을 통해 눈을 뜬 겁니다. 이제 나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생겼다고나 할까요.”

※ 라 콤파르시타(La Cumparsita) : 1915년 우루과이의 마토스 로드리게스 작곡. 아르헨티나 속어로 ‘가장행렬’이란 뜻.

“

빠르고 경쾌한 탕고의 선율이 쿵쿵 울리면서 무겁고 침울한 죽음에 억눌렸던 저의 영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어깨가 들썩여지고, 발이 저절로 까딱까딱 박자를 맞추게 되더군요.

딱딱하던 머리가 부드러워지고 차가웠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온몸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

립반대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장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수봉구 지역신문 1면 톱 장식, 인터넷방송 검색어 1위로 수봉산 일대에서 가장 핫한 인물로 손꼽혔다.

오늘은 수봉대학교 신문사 학생 기자들이 취재차 그를 찾았다. 한 시간 가량 뉴타운 정책과 대책위 활동에 집중되던 인터뷰가 마지막 질문 앞에서 멈췄다.

“카페 주인과 대책위 사무장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 같아요. 그럼에도 행동에 나선 데에는 개인적인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보이네요. 그 얘기가 궁금합니다.”

오영철은 약간 당황했다. 공적인 자리에서 털어놔도 될지, 아님 못 들은 척 넘어가는 게 나을지 난감했다. 잠시 후 오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뒤쪽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화려한 금속장식이 붙은 빨간색 아코디언을 들고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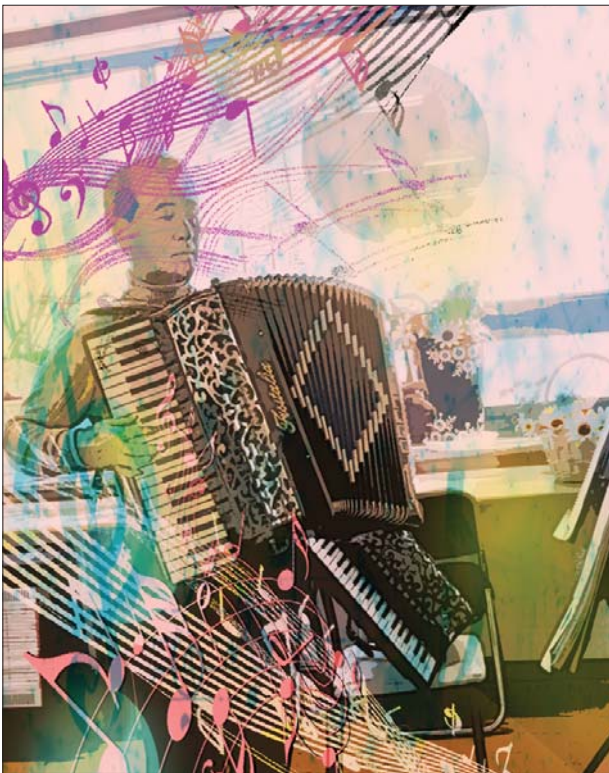
주위가 일순 술렁이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어색한 듯 오영철이 헛기침을 몇 번 내뱉었다.

학생들은 긴장한 채 오영철의 이야기에

때문에 화가 나서 내가 하겠다고 큰소리치고는 아코디언을 잡고 씨름하던 중이었다.

그때 한 노인이 들어왔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자정 가까운 시간에 등산객이 올라올 리도 없고 아무튼 기분이 이상했다. 중기에 마른 편이고 하얀 머리카락이 듬성 듬성한 게 많이 초췌해보였다. 몸 어디가 아픈지,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고 웃음기라곤 찾아볼 수 없고 운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결혼식 하객처럼 말쑥한 정장 차림에 불룩하고 묵직해 보이는 시커먼 비닐봉지를 들었으니 누가 봐도 고개를 가웃했을 것이다.

노인은 들어서자마자 아코디언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커피도 마시지 않고 계속 아코디언만 쳐다보길래, 오영철은 연주할 줄 아냐고 물었다. 뜻밖에도 아코디언을 처음 본다고 했다.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곤 오영철을 뻔히 쳐다보면서 한 번만 연주해 줄 수 없냐고 했다. 오영철은 팔짝 뛰며 손사래를 쳤다. 노인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졸랐다. 그래도 그가 응하지 않



일러스트레이터 金多海(서양화02-07)



Growing Beyond

글로벌 무대에서의 거침없는 질주, 언스트앤영 한영이 함께하겠습니다!

세계화의 선두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계·컨설팅 법인 언스트앤영 한영 회계감사, 세무, 재무자문, 어드바이저리 분야에서의 차별화된 전문서비스를 통해 소중한 고객이 글로벌 무대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일구어 나가도록 지원합니다. 미래의 절대 강자가 되는 법, 언스트앤영 한영과 함께 모색하십시오!

ERNST & YOUNG
Quality In Everything We Do

언스트앤영 | 한영회계법인
언스트앤영 어드바이저리(주)



SBS
내일을 봅니다

하나의 SBS 세배의 감동

목동 본사, 상암동 프리즘타워, 일산제작센터로 미래형 미디어 시스템을 갖춘 SBS가 즐거움과 감동을 증폭합니다. 신뢰할 수 있고 창의적인, 다양하면서도 유익한 내일의 방송을 오늘 이루어 갑니다.

Creative
창의적인

Trustworthy
신뢰할 수 있는

Diversity
다양한

Wholesome
유익하고 건강한

목동방송센터 프리즘센터 일산제작센터



KINGS, THE GLOBAL LEADING INSTITUTION IN NUCLEAR POWER PLANT ENGINEERING

KINGS provides an innovative education system and field practice oriented programs to produce leadership-level professionals in the nuclear power plant engineering.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총장 박군철
(원자핵공학과 71학번)



통합 비즈니스 인프라의 압도적 파워-
성공 비즈니스는 이제 당산으로 통한다!

당산 SK V1center란?

비전, 교통, 스케일, 디자인, 브랜드 등 성공 비즈니스를 위한 No.1 인프라가 하나로 통합되어 압도적 파워를 발휘하는 신개념의 4세대 지식산업센터를 의미합니다.



Vision · Value · Victory No.1

당산 SK V1center

문의 02)2635-0009

· 본 광고물에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광고물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홍보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물에 기재된 내용은 시변 및 허가상의 문제로 인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광고물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개별 영입사업이 제공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홍보관으로 문의 확인 바랍니다.
· 상기 지형설계도의 가리는 내야비 지도 감속도 문물 적용한 거리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완주군청
직접 시행/분양

- 도립공원 모악산과 구이호반에 위치한 고품격 명품 전원 주택 단지 -
구이 모악레이크빌 전원주택용지 본격 분양



전주시

구이저수지

- 위치 :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거리 658번지 일원
- 면적 : 162,600㎡ (세대별 분양면적 500㎡, 160필지)
- 주택용지 : 85,578㎡, 공공시설 31,659㎡, 녹지 45,363㎡
- 기반공사완료예정 : 2013. 7월경 (사정에 의해 지연될 수 있음)
- 기반시설 :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지중화, LPG공동급급 등
- 건폐율 : 60%, 용적율 120%, 2층이하 단독주택
- 분양자격 : 지역제한없이 선착순 (단, 1세대 1필지)

① 사통팔달 교통여건

- 전주에서 약5km지점 구이면소재지 위치
- 국도 27호 및 국도 21호 4차선 도로 교차 (5분내)
- 고속도로에 10분내 연결(인접지 새만금고속도로 IC 건설 계획)

② 쾌적한 기반시설

- 충분한 녹지공간과 수변공원 조성(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계획)
- 전봇대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
- 단지내 동서남북 도로망 구축

③ 기타

- 배산임수 지역인 최고의 주택지 / 초·중·고 교육시설 인접
- 인접지역에 농협,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주민자치센터 위치
- ※분양가 70%까지 저리대출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완주군 건설교통과

분양 문의전화

063)290-2821~3

동 정

수 상

▲朴鍾大(국어교육51-56 前주일
대사관 교육관·
시조시인)=지
난 5월 25일 강
원도 화전군 월
하문학관에서
'왕십리역 유실
물센터' 작품으로 제14회 월하시
조문학상 수상.

▲金在浩(생물교육53-57 명동
성 모 안 과 원
장)=지 난 4월
20일 미국 백
내장굴절수술
학회 (ASCRS)
정 기총회에서
아시아 최초로 명예의 전당賞
수상.

▲趙炳海(상학53-57 서울향료 대
표)=지 난 5월 14일 제12회 식품
안전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姜大鍵(치의학53-57 강대건치
과 원장)=지 난
5월 6일 33년
동안 전국 한센
인 정착촌을 돌
며 무료 치과 의
료봉사를 펼쳐
온 공로로 가톨릭 한센인 모임인
'한국가톨릭자조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柳熙永(회화58-62 이화여대
명예교수·대한
민국예술원 회
원)=지 난 5월
16일 재단법인
5·16민 족상으
로부터 제48회
5·16민족상(학예부문) 수상.

▲李茂根(농생물60-64 모교 농산
업교육과 명예
교수)=지 난 4
월 13일 미국
일리노이대 사범
대학동문회로부
터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
▲朴興日(영어교육60-64 한국기
독교직장선교연
합회 명예이사
장)=지 난 5월
30일 세계성령
중앙협의회가
수여하는 'The
Holy Spirit's Man Medallion' 교
계연합부문 대상 수상.

▲朴長守(섬유공학63-71 아식스
코리아 사장)=지 난 5월 4일 한국
기업경영학회로부터 제17회 기업
경영대상 수상.

▲李錫采(경영64-68 KT 회장)
=지 난 5월 15
일 한국능률협
회로부터 '2013
년 한국의 경영
자상' 수상.

▲崔相浩(농업교육65-69 국민정
신연구소장)=
지 난 4월 22일
제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서
안전행정부 장관
상 수상.

▲李鎭工(사대원68졸 변호사)=
지 난 4월 25일 제50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

▲諸葛政雄(상학65-72 대림대 총
장·시인)=지
난 6월 8일 한
국민족문학가협
회가 수여하는
제16회 한국민
족문학상 대상
수상.

▲丁憲源(의학69-75 前모교 병원
장)=지 난 4월
10일 보건복지
부와 문화체육관
공부 주최 '2013
메디컬 코리아'
시상식에서 대통
령 표창 수상.

▲張太平(사회70-77 한국마사회
장)=지 난 5월
24일 한국전문
경영인학회가 수
여하는 한국
CEO대상 특별
상 수상.

▲李水用(의학70-77 동남권원자
력의학원장)=
지 난 4월 26일
부산시 병원 회
정 기총회에서
대한병원협회장
상 수상.

▲金文洙(경영70-94 경기도지
사)=지 난 5월
22일 한국신뢰
성학회로부터 한
국신뢰성대상
(정부공공부문)
수상.

▲金外淑(가정관리72-76 한국방
송통신대 교수)
=지 난 5월 2일
청소년·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홍조 근정훈장
수훈.

▲李仁星(불문73-77 소설가)=
지 난 5월 25일
강원도 춘천시
김유정문학촌에
서 제7회 김유
정 문학상 수상.

▲金大勳(경영79졸 LG CNS 사
장)=지 난 5월 22일 한국신뢰성
학회로부터 한국신뢰성대상(서비
스부문) 수상.

▲金興南(전자공학75-80 한국전
자통신 연구원
장)=지 난 5월
24일 제18회 생
성성 경영자 대
상(연구경영부
문) 수상.

▲李相俊(기계공학76-80 화인 대
표)=지 난 5월
16일 청와대 영
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에서 동탑산
업훈장 수상.

▲李大衡(화학교육76-83 춘천교
대 교수)=지 난
4월 18일 대한
화학회 제111회
총회에서 화학교
육상 수상.

▲蔡東旭(법학77-81 검찰총장)
=지 난 5월 10
일 학교법인 대
양학원으로부터
자랑스러운 세종
인상 수상.

▲柳善普(국문81-85 군산대 교
수)=오 는 6월
20일 八峰 金基
鎮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
24회 팔봉비평
문학상 수상.

▲文錫胤(철학81-85 경희대 교
수)=지 난 5월 27일 趙芝薰시인
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제13회 지
훈상(국학부문) 수상.

▲全映信(기상82-86 국립기상연
구소 황사연구
과장)=지 난 5
월 6일 한·중·
일 3국의 황사
분야 협력에 기
여한 공로로 한·
중·일 환경장관회의 환경상 수상.

▲金洪姬(약학82-86 모교 치의학
과 교수)=지 난
5월 15일 생화
학분자생물학회
연례학술대회에
서 제9회 마크
로젠 여성과학자
상 수상.

▲金勝根(국악85-89 모교 국악과
교수)=지 난 5월 6일 서울 호암아
트홀에서 제4회 홍진기 창조인상
(문화부문) 수상.

▲權聖勳(전기공학94-98 모교 전
기정보공학부
교수)=지 난 5
월 6일 서울 호
암아트홀에서 제
4회 洪繼基 창
조인상(과학부
문) 수상.

▲전예은(작곡04-08 인디애나주
립대 박사과정)=지 난 4월 4일 미
국저작인협회가 주관한 모튼 골드
작곡가상 수상.

▲朴竣亨(AMP 2기 신라교역 회
장)=지 난 5월 25일 한국인사관
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경영자
대상 수상.

▲金在哲(AMP 4기 동원그룹 회
장)=지 난 4월
11일 세네갈 수
산업 및 식품산
업 발전에 기여
한 공로로 세네
갈 정부로부터
국가공로훈장 수훈.

▲李相春(AMP 67기 에스씨엘 대
표)=지 난 5월 16일 청와대 영빈
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유공자 포
상에서 동탑산업훈장 수상.

▲金熙瑾(AIP 2기 벽산엔지니어
링 회장)=지 난
6월 4일 독일
몽블랑문화재단
이 주관한 제22
회 몽블랑 문화
예술 후원자상

IEEE English for Engineering

공학과 영어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공대 시절, 전공과 영어를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공학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희 KITS 산학연정보사는 세계적인 명성의 공학 전문 학회인 IEEE가
세계적인 명성의 영어 전문 교육기관인 Cambridge University와 함께 만든
최고의 공학영어 학습프로그램인 IEEE English for Engineering을
우리나라 모든 공대생들이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국내 20개 대학에서
2,000여 명의 회원들이
IEEE Student Branch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http://english.ieee-elearning.org>
에서 그 효과를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상.

▲李元海(AIP 15기 대모엔지니어링 대표)=지난 5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에서 철탑산업훈장 수상.

▲韓성옥(AIP 45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지난 4월 19일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과학기술훈장(진보장) 수훈.

▲金辰錫(AIP 47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본부장)=지난 4월 19일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과학기술훈장(진보장) 수훈.

▲趙根煥(AIC 30기 대영유비텍 대표)=지난 4월 19일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 과학기술 훈장(혁신장) 수훈.

▲尹洪根(AMPFRI 29기 제너시스 BBQ그룹 회장)=지난 5월 16일 재단법인 5·16민족상으로부터 제48회 5·16민족상(산업부문) 수상.

▲柳錫成(AFP 1기 서울신학대 총장)=지난 4월 10일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수여하는 제4회 대한민국 참교육 대상(사회봉사교육 부문) 수상.

▲노희열(ASP 18기 오로라월드 회장)=지난 5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에서 금탑산업훈장 수상.

인 사

▲田允喆(법학60-65 前감사원장)=지난 5월 22일 창립된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에 선임.

▲任敦姬(고고인류64-68 동국대 석좌교수)=지난 5월 7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 겸 무형문화재분과 위원장에 선임.

▲張錫準(사회64-68 前보건복지부 차관·한서대 부총장)=지난 4월 2일 한국자원봉사포럼 제9대 회장에 취임.

▲崔鴻圭(교대원65-67 중앙대 명예교수·교육대학원 동창회장)=지난 5월 21일 한국독도역사문화아카데미 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선출.

▲朴鍾秀(무역66-70 한국금융투자협회장)=지난 5월 7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국제증권협회 협의회(ICSA) 연차총회에서 회장에 재선출.

▲吳秉熙(의학71-77 모교 병원 진료부원장)=지난 5월 31일 임기 3년의 모교 병원 제16대 원장에 임명.

▲鄭奇彦(사회교육72-76 모교 대학행정교육원장)=지난 4월 22일

임기 3년의 수원여자대학교 총장에 선임.

▲李明植(섬유공학78졸 상명대 교수)=지난 5월 21일 한국신용카드학회 정기총회에서 제6대 회장에 연임.

▲洪亨權(영문72-79 동아대 교수)=최근 동아대 교수협의회 의장 직선제에서 임기 2년의 제13대 의장에 당선.

▲金承協(의학73-79 모교 영상의학교실 교수)=지난 5월 2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세계조음과 의학회 제14차 학술대회에서 임기 2년의 부회장에 선임.

▲睦榮堧(법학74-78 前헌법재판소 재판관)=지난 4월 25일 학교법인 을지학원 제5대 이사장에 선출.

▲金道薰(무역75-79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지난 5월 10일 산업연구원(KIET) 원장에 선임.

▲崔範樹(경제75-79 前한국개인 신용 부사장·신한금융지주 부사장)=지난 5월 23일 신한아이스 사장에 선임.

▲李啓聖(정치77-81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본보 논설위원)=지난 5월 29일 한국일보 편집국장 직무대리에 선임.

▲諸美卿(가정관리78-82 인제대 교수)=최근 임기 1년의 한국 소비자정책교육학회 제9대 회장에 선임.

▲崔斗永(사회교육78-83 강원도 행정부지사)=지난 4월 23일 안전행정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

▲朴鍾聲(역사교육83졸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지난 5월 6일 제4대 조세심판원장에 취임.

▲殷成朱(경제80-84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장)=지난 4월 17일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에 임명.

▲金英豪(사회교육80-84 前감사원 기획관리실장·2차장)=지난 4월 22일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

▲方文圭(영문81-85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지난 4월 17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에 임명.

▲楊聖光(대학원84-86 前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지난 4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선도연구실장에 임명.

▲全萬福(행정원85-88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지난 5월 24일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

▲崔元睦(행정원86-89 前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지난 4월 17일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에 임명.

▲柳京和(국악86-91 앙상블 이도 대표·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지난 5월 7일 서울시청소년국악단 단장에 임명.

▲金永燮(원자핵공학87-95 연합뉴스 홍보기획팀장)=지난 4월 16일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과학기술비서관실 행정관에 임용.

▲崔在裕(AIC 14기 前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장)=지난 4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융합실장에 임명.

▲鄭星采(AIC 20기 前MBC 서울경인본부장)=지난 5월 21일 MBC 글로벌사업본부장에 선임.

▲李成洛(ALP 10기 前신한은행 부행장·신한아이타스 사장)=지난 5월 23일 신한생명 사장에 선임.

▲徐永世(ALP 13기 포스코 전무)=지난 5월 8일 한국철강협회 스테인리스스틸(STS) 클럽 회장에 선임.

▲金在烈(ALP 15기 포스코 상무)=지난 5월 8일 한국철강협회

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 약대/성균관대 등 명문대 동창회 제휴사 엔노블

기업의 경제민주화 강연회 대한민국모범기업인 大賞 시상

엔노블

가장 신뢰받는 결혼정보회사, 엔노블에서 특별한 혜택으로 모시겠습니다.

-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약대, 성균관대 동창회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단독 제휴사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KBS TV가이드 추천 "BEST 결혼정보회사"
- 경향신문 유망브랜드대상, 2012 모범기업인대상 "국회보건복지위원회장상" 수상
- 성훈주의 - 1년 회원기간 중 만남횟수 제한이 없는 멤버십 회원제
- 철저한 3:1 비공개 회원관리 ■ 다채로운 노블레스 파티 이벤트
- 부산직영지사 및 미국 4개 협력지사 운영 ■ VVIP, 전문직 전담팀 운영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16 상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스마크 4006호
[뉴저지지사] 263 BROAD AVE PALISADE PARK, NJ [맨하탄지사] 369 7TH AVE 2ND FL, NEW YORK NY 10001 [플러싱지사] 150-19 NORTHERN BLVD 4TH FL FLUSHING NY 11354

서울대학교 동문과 자녀분들께 최고 20% 가입비 혜택을 드립니다.

엔노블은 2009년부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협력하여 동문 및 자녀분들을 위한 결혼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받는 결혼정보회사, 엔노블에서 특별한 혜택으로 모시겠습니다.

- 서울대, 고려대, 이화여대 약대, 성균관대 총동창회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단독 제휴사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KBS TV가이드 추천 "BEST 결혼정보회사"
- 경향신문 유망브랜드대상, 2012 모범기업인대상 "국회보건복지위원회장상" 수상
- 성훈주의 - 1년 회원기간 중 만남횟수 제한이 없는 멤버십 회원제
- 철저한 3:1 비공개 회원관리 ■ 다채로운 노블레스 파티 이벤트
- 부산직영지사 및 미국 4개 협력지사 운영 ■ VVIP, 전문직 전담팀 운영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16 상원빌딩 3-5층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스마크 4006호
[뉴저지지사] 263 BROAD AVE PALISADE PARK, NJ [맨하탄지사] 369 7TH AVE 2ND FL, NEW YORK NY 10001 [플러싱지사] 150-19 NORTHERN BLVD 4TH FL FLUSHING NY 11354

강구조센터 회장에 선임.

▲金樂會 (SPARC 20기 국무조정
실 조세심판원
장)= 지난 4월
17일 기획재정
부 세제실장에
임명.

▲**吳世日**(ASP 17기 前신한은행 부행장·신한은행 상임고문)=지난 5월 23일 신한데이터시스템 사장에 선임.

행사

▲金相廈(정치45-49 삼양사 회장·수당재단 이사장·본회 고문)= 지난 5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2회 수당상 시상식 개최.

▲**兪仁煥**(국어교육50~54 모교 국
어교육과 명예
교수·문학과문
학교육연구소장)
=지난 4월 20
일 백두산문인회
에서 ‘한국문학
의 과제와 비전’을 주제로 특강.

▲高炳佑 (경제 52-56 한국경영인 협회장) = 지난 6월 1일 전북 군산시 옥곡읍 옥정리에서 祖父 高奉政 의병 장 증훈비 제막식 개최.

▲張潤宇(응용미술56-62 성신여대 명예교수)= 최근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1회 대한민국名人지정공모의 심사위원으로서

초대 명인 33명 선정.

▲申秀貞(기악59-63 모교 기악과 명예교수·음대 동창회장·피아니스트)= 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동 모차르트 홀에서 슈만의 가곡으로 '이 아름다운 오월에' 연주회 개최.

▲李容環 (전자공학60-64 前KT 사장·前국회의원)= 프랑스 퐁텐블로에 위치한 인시아드(INSEAD) 경영대학원에서 6개월간 특강과 MBA 학생 지도.

▲權寧彬(사학161-65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장)= 지난 5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13년 문화융성 컨퍼런스 개최.

▲金明子(화학62-66 한국여성과학기술훈장) = 지난 5월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여성과학 10주년 기념 총서 제1권 '원자력 트립레마'(까치판) 출간기념회 개최.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 교수·북한법인 구회장)= 지난 5월 27일 서울 뉴국제호텔에서 전북대 한상국 교수를 초청해

월례발표회 개최.

▲趙英男(성악64입 방송인)= 지난 5월 9일부터 6월 22일까지 서울 북촌 나무 모던&컨템포러리 아트갤러리에서 '조영남-코카콜라 프레즈' 전시회 개최.

▲金昇姬(응용미술65-69 국민대 교수·한울회 회장)=지난 6월 5~18일 서울 인사동 선화랑에서 '동행'을 주제로 브로치 전시회 개최.

▲張萬基 (경대원66-68 인간개발 연구원장)= 지난 5월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모교 경영대 金炳道학장을 초청, '혁신으로 대한민국을 경영하라'를 주제로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개최.

▲金仁圭(정치69-73 前KBS 사장·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본회 부회장)
= 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KBS신관 공개
홀에서 방송 비화 '드라마 스캔들' 출판기념회 개최.

▲李在然(가정관리70~74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
장)= 지난 5월
24일 서울 양재
동 엘타워에서
대안교육현황 및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李允植(교육73-77 인천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지난 5월 11일 중앙대 약학대학 R&D센터에서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 비전과 교육행정의 과제'란 주제로 제167차 추계학술대회 개최.

▲李珉柱(회화76-80 한국·인도
현대작가교류화
장)=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인도
뉴델리 한국문화
원과 두미멀아트
센터에서 河秀京(회화70-74)·崔
炳國(회화77-84)·宋根英(동양화
86-90)등문 등과 함께 제7회 한
국·인도 현대작가교류전 개최.

▲李英勳(회화81-85 서양화가)
=지난 5월 28일~6월 10일 서울
안국동 사이아트갤러리에서 'Ex-
pansion of space' 전시회 개최.

▲李相起(서양사학81~87 아시아
N 발행인·본보
논설위원)= 지난 5월 13일 서
울 한국프레스센
터에서 한국기자
협회 李炯均(정
치59~64) 고문의 후원으로 민병돈
前육사 교장, 朴相高 Nabe캠프
호스트, 한양대 鄭大澈명예교수,
裴漢星성우, 국민대 안드레이 란
코프 교수 등을 초청, 제4회 네마
음의 스승 행사 개최.

▲李柱一(심리82-86 한림대 교수·한국산업 및 조직심리학회장)
= 지난 5월 24~25일 춘천 한림대에서 '일자리 창출시대와 채용의 기주'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 개최.

▲李美銀(기악91-95 피아니스트)=지난 6월 10일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슈베르트, 슈만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金殷蘭(기악94-98 피아니스트)=지난 6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바흐, 베토벤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元光鎬(ACAD 36기 前국회의원·한국바른말연구원장)= 지난 5월 15일 대한민국헌정회가 주관한 세종대왕 탄신 616돌 기념 학술강연회에서 '나는 왜 한글과 세종대왕에 미쳤나'를 주제로 강연.

■ 삼가 명복을 빕니다

▲南宮堧(농학38졸 前한국저미연구소장)=5월 14일 별세(93세)
▲沈貞燮(화학공학45-48 모교 명예교수)=5월 12일 별세(87세)
▲朴永夏(의학46-50 을지재단 명예회장)=5월 7일 별세(86세)
▲韓相享(가정교육46-50 건국대 명예교수)=4월 29일 별세(85세)
▲尹錫錫(화학공학51-55 충남대 교수)=4월 13일 별세(83세)
▲南惠祐(대학원52-56 前국무총리)=5월 18일 별세(89세)
▲鄭春澤(정치54-58 前산업은행 총재)=5월 26일 별세(80세)
▲金在一(수학65졸 前한영고 교사)=5월 15일 별세(75세)
▲金文浹(대학원68졸 모교 명예교수)=5월 18일 별세(97세)
▲崔翔五(금속공학63-67 신우인터내셔널 사장)=5월 26일 별세(69세)
▲朴仁子(치의학63-69 강라치과의원장)=5월 9일 별세(67세)
▲洪景澤(치의학64-71 흥치과의원장)=5월 11일 별세(69세)
▲朴英淑(AMP 31기 前명민당 부총재)=5월 17일 별세(81세)
▲陳在舜(AMP 36기 한일거점 회장)=5월 9일 별세(76세)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 e메일 : snual1969@naver.com 또는 snua@korea.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오직, 롯데마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동크 물가안정

수개월간 사전기획, 혁신적인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브랜드입니다

손크 동반성장

우수기업을 발굴·육성, 롯데의 지원으로
완성된 동반성장대표 브랜드입니다



www.lottemart.com



藥山 게르마늄샘물

주문전화 033) 435-8833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물 인증12년 연속
한국 으뜸샘물 선정

강원도 특산물 인증

FDA 공장등록 No.
19897672920

식품의 노벨산, 세계최고 권위

iTQi Superior Taste Award 금상 수상

- 일본 생명의 물 연구소장 마쓰시다 가츠히로 박사가 세계적 명수로 인정한 물
- 반도체미네랄(게르마늄, 셀레늄, 실리카)을 모두 함유한 샘물
- 암, 위장병, 당뇨 등 성인병 및 아토피 환우들의 체질개선 샘물
- 청와대와 중국 조어대국빈관 납품 샘물
- 12년 연속 한국 최고의 물로 선정 - 한국표준협회



국내 유일하게 미국, 일본, 중국으로 수출하는 샘물

약산게르마늄샘물은 홍천군 약물산의 지하205m암반에서 채수한 세계적인 게르마늄 샘물로 프랑스 루르드 게르마늄샘물과 같은 천연유기게르마늄 함유 샘물입니다.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고 물맛이 뛰어나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줌으로서 아이들의 분유 타는 물로, 노화방지효과로 인한 노인들의 음용수로, 각종 암 및 성인병 환우들이 체질 개선을 위해 음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과 효과는 충남대 등 3개대학과 일본 생명의 물 연구소장 마쓰시다 가츠히로 박사의 연구 논문에 발표되었으며 미국, 일본, 중국 등지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21세기 한국을 넘어 세계를 밝히는 리더.
아름다운 자연속에 첨단 기술로 빛어 올린 세계 최고의 캠퍼스

www.sunny-intl.co.kr

SUNNY

Sunny International Inc.
Sunny Corporation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7-36 랜드마크타워 1318호 | TEL : 02-555-0062

한국일보 2013년 4월 11일 목요일 26p

비료무역 정통 ... 농촌 살리기에 앞장서

혁신인물 부문

박명학 회장

과학영농 = 고품질 비료시대
식량자급 돕는 '1등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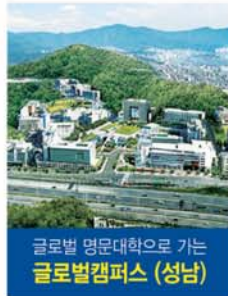
일간스포츠 2013년 2월 28일 목요일 9p

비료무역 강자(强者), (주)신태양물산
신뢰경영으로 위기 타파(打破)



가천대학교 '가천하와이교육원'이 글로벌 교육의 메카로 비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인재의 산실 - 가천대학교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가는
글로벌캠퍼스 (성남)



21세기 첨단의학을 여는
메디컬캠퍼스 (인천)



아름다운 캠퍼스로 빛나는
강화교육원 (강화)



동북아 중심병원
길병원 (인천)



기업정신
- 정도경영
- 고객감동

기업목적
- 글로벌기업
- 사회공헌

핵심가치
- 변화지향
- 인재육성
- 지속적 성장

기업정신
- 정도경영
- 고객감동

Since 1976

미래의 꿈과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기업
그 중심에 삼호개발이 있습니다.

2012.12 서초구청 표창(우수봉사상)
2012.12 한국도로공사 표창(동반성장 추진기여)
2012.04 태국 노동부장관 우수사업장 표창
2012.03 기획재정부장관 표창(모범납세자상)
2009.05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구축
2008.12 대통령 표창(고속도로 건설)
2006.12 건설교통부장관 표창(건설협력 증진대상)
2005.12 국무총리 표창(고속도로 건설)
2005.05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시장(KOSPI) 이전 상장
2002.12 대통령 표창(고속도로 건설)
2002.07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KOSDAQ) 상장
2000.07 국무총리 표창(도로건설기술 개발)

Samho
삼호개발

Samho Development Co., Ltd.
사업영역 : 토목/건축사업, 산업환경설비사업, 아스콘/골재사업, 조경사업, 건설기계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96 삼호빌딩 TEL : 02)2046-7700 FAX : 02)2046-7777
www.samhodev.co.kr

삼호씨엔엠 / 삼호코넨 / 삼호환경기술 /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 삼호에스에이치투자자문 / 이앤이매니지먼트 / 삼호자원

‘카본’, ‘세라믹단열재’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 모간이 있습니다.

Thermal Ceramics
세계최초 바이오슬루브 웰빙 단열재(친환경)
Superwool, 세라믹화이버, 세라믹보드, 파이로블록 모듈 외

Engineered Carbon
첨단 카본분야의 리더
초고순도 Glassy Carbon 합침 및 코팅, Graphite 제품, Carbon Felt 외

Electrical Carbon
카본이라면 ‘가람카본’
산업용 카본브러쉬, 집전자용 카본, 슬립링 외

Graphite 열교환기
세계적인 흑연 열교환기
Graphite Shell & Tube Heat Exchangers 외

株式 會社 모간
www.morgankorea.kr
E-mail : karahm@karahm.co.kr

성남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39-3
전화(031)735-5100 팩스(031)735-5106

카본공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복리1-14
전화(053)615-1061 팩스(053)615-1063

세라믹공장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복리1-31
전화(053)616-2091 팩스(053)616-2095

신 간

■ 다시 보는 한국사

— 李成茂·李熙眞 지음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한국역사문화연구원 李成茂(사학 56-60)원장이 장남 李熙眞박사와 공동으로 고대부터 근현대사까지 한 눈에 보는 ‘다시 보는 한국사’를 집필했다.

이 책은 고대, 고려, 조선, 근현대 각 시대별 지배 세력의 변화와 그에 따른 정치 구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저자는 “역사는 정치사를 중심으로 발전했으므로, 그 흐름을 체계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정치사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각 시대의 국가 지배 세력과 정치형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경제, 사회, 사상, 문화, 주요 인물들을 정치사와 유기적으로 풀어낸다. (청아출판사刊·값35,000원)

■ 이해육 할아버지

지구별 여행기

— 李海旭 지음



체신부 차관, KT 회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사장 등을 지낸 李海旭(상학 57-63) 동문이 흥미진진한 세계 여행 이야기를 여행사진과 함께 담은 책.

전세계 독립국가 1백96개국 중 1백93개국을 여행한 첫 한국인인 李동문은 직접 겪은 감상과 체험을 진솔하고 담담하게 풀어냈다.

재미있는 여행 에피소드 이외에도 ‘자세히 알아보기’라는 지식 정보 페이지를 따로 뒤 지구촌 곳곳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있다. (예림당刊·값12,000원)

■ 꿈꾸어야 청춘이다

— 元佑鉉 지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내 온 70여 년 저자의 인생을 되돌아 본 산문집.

미국 보스턴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국내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해

온 元佑鉉(행정61-65 고려대 명예교수)동문이 그동안 살아온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다.

미국에서 힘들게 유학생활동을 하는 유학생이 되기도 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양심 있는 교수가 되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더없이 자상한 아버지 같은 스승이 되기도 하는 그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 (누벨클래리刊·값25,000원)

■ 미학개론

— 金文煥 편역



한국에서의 미학 연구는 경성제국대학 때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경로로 파급됐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모교 미학과 金文煥(미학64-68)명예교수가 ‘미학개론’을 강의한 우에노 나오테루 前경성제대 교수의 강의노트를 편역했다.

미학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된 학문의 최초 모습이 어땠는지 살핌으로써 오늘날의 미학이 처음으로 수입되고 발전된 역사를 되돌아볼 기회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24,000원)

■ 이미지 문화와 시대 쟁점

— 朴明珍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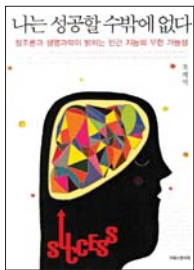
모교 중앙도서관장·부총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장을 지낸 언론정보학과 朴明珍(불문 65-69 본보 논설위원)명예교수가 정년퇴임을 기념해 영상문화 이론을 집대성한 논문집을 펴냈다.

1981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표했던 영상문화 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모은 것으로 1993년부터 최근까지 주요 일간지에 발표했던 칼럼들을 함께 수록했다.

아날로그 이미지와 디지털 이미지의 세계로 발전해오면서 이미지의 존재 방식과 기능, 그 사회적 의미를 담은 논문이 대부분이다. (문학과지성사刊·값30,000원)

■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 曹季錫 지음



경제학 박사인 曹季錫(영여교육65-69) 동문이 창조론과 생명과학으로 밝혀진 인간 지능의 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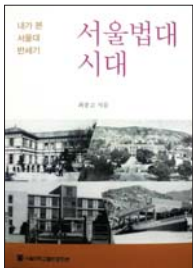
을 정리한 책.

총 7장으로 나눠 창조주의 설계이론과 생명과학, 교육적 관점에서 지능을 설명한다. 사람마다 다른 지능을 갖고 있으며,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크리스찬선적刊·값12,000원)

■ 서울법대시대

한 법학자의 학문세계

— 崔鍾庫 지음



내가 본 서울대 반세기 ‘서울법대시대’는 196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해 올해 정년퇴임을 하기까지 崔鍾庫(법학 66-70) 동문이 학생으로서, 교수로서 직접 체험하고 성찰한 사실들을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다.

법사상사학을 전공한 저자는 예리하고 자상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지난 서울대 반세기를 자유롭게 서술했다. 1895년 법관양성소로 개학해 경성법전과 경성제대를 거쳐 해방과 함께 서울대학교로 통합 개교되는 학술사를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대학교의 역사를 시기별로 구분해 연건동과 동송동 시절, 관악캠퍼스로의 이전 이후를 다각도로 조명했다.

‘한 법학자의 학문세계’는 崔鍾庫명예교수가 그동안 펴낸 책들의 서문 혹은 머리말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1970년에 처음으로 석사논문을 기초로 몇 편의 글을 붙여 낸 ‘법과 종교와 인간’을 처녀작으로 법학연구서, 일반교양서, 시집과 시화집 등 40년간 70여 권의 저서와 10여 권의 번역서를 출간했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35,000원/민속원刊·값15,000원)

■ 드라마 스캔들

— 金仁圭 지음



KBS 사장을 지낸 한국전쟁기념재단 金仁圭(정치 69-73 본회 부회장)이사장이 방송비화 ‘드라마 스캔들’을 출간했다.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은 책이다. 드라마와 인연을 맺게 된 과정, 드라마를 놓고 방송 최고 책임자로서 했던 고민도 녹여냈다.

공연

■ 許윤재 해금 독주회

— 6월 27일 부암아트홀



모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許윤재(국악03-08)동문(사진)이 6월 27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부암아트홀에서 해금 독주회를 갖는다.

한국장작음악그룹 ‘나리랑’에서 활동 중인 許동문은 이날 조선 후기 선비들의 교양음악으로 연주했던 ‘영산회상’을 선보인

평소 ‘확실한 공영방송’을 외쳐온 그는 방송의 중심은 보도, 시사, 다큐 프로그램이 돼야 한다는 논리에서, 드라마에는 관심도 없었을 뿐 아니라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공영방송의 경영책임자가 되자 오히려 뉴스보다는 드라마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낯설기만 했던 드라마 세계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드라마 옹호론자 내지는 예찬론자로 변신, 드라마 제작 현장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페이퍼북스刊·값18,000원)

■ 나를 넘어선 나

— 崔焘東 외 지음



한별병원 崔焘東(의학 72-79)원장과 국내 유일의 건강전문 작가 이송미씨가 기획한 책으로, 崔동

문이 과거의 자신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을 깨우는 삶의 기술’을 알려준다.

마음공부의 길을 걷게 된 저자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몸은 물론 주변의 상황까지 바꾸는 마음의 힘’을 과학적 근거를 통해 증명하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고통, 선택, 치유, 깨달음의 4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구체적인 방법부터 완전한 행복으로 향하는 깨달음의 길을 제시한다. (미디어월刊·값13,800원)

■ 생활건강 사용설명서

— 柳瑩昌 지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을 지낸 柳瑩昌(토목공학73-80)동문이 일반인이 꼭 알고 알아야 할 생활건강 상식들을 조목조목 그리

다. (공연문의 : 부암아트 391-9631)

■ 張韶珪 피아노 독주회

— 6월 29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張韶珪(기악 92-96 원광대 교수)동문(사진)이 6월 29일 오후 2시 서울 예술

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한다.

미국 텍사스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張동문은 이날 바흐, 히나스테라, 슈만 등의 작품을 공연한다. (공연문의 : 부암아트 391-9631)



고 친절하게 설명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하는 약물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충분한 건강 상식, 음식에 대한 세심하고 일반적인 고찰, 대량생산되는 육류와 음료의 진실 문제, 비만의 문제, 좋은 호흡법과 운동법, 그리고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제 제기과 더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황금물고기刊·값15,000원)

■ 사후세계의 비밀

— 金自成 역



동해동인병원 정신과 전문의인 金自成(의학79-85) 동문이 미국에서 활동 중인 사후세계 연구자

마이클 팀의 저서 ‘Afterlife Revealed’를 우리말로 옮겼다.

이 책은 영의 세계와 영매들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우리가 죽음 이후 어떤 여정을 갈 것인지 가장 근접하게 제시했다.

우리는 죽음에 관한 한 선행학습을 준비하는 경우가 드물다. 죽음은 죽은 후에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미리 준비하고 오면 훨씬 적응이 빠르므로 높은 영들이 영매를 통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이 책에는 왜 천국에 있는 영들이 영통제자와 영매를 통해 인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지 궁금증을 풀어줄 결정적 증언들이 들어 있다. (북성재刊·값15,000원)



OPEN MY STORY!

이야기 한다는 것 이야기 듣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더 행복해질 수 있기에
이제 삼성이 생각의 문을 활짝 엽니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가득한 그 곳



SAMSUNG BLOG & TWITTER & FACEBOOK

삼성블로그(blog.samsung.com) 트위터(twitter.com/samsung) FACEBOOK(www.facebook.com/samsung)





서울신학대학교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개교 100년, 새 사람 새 역사

사랑의 정신으로
참된 진리를 전한 지 100년,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사랑과 평화의 빛을
세상에 비추겠습니다**

학 부 | 신학과 · 사회복지학과 · 보육학과 · 영어과 · 중국어과 · 일본어과 · 기독교교육과 · 유아교육과 · 교회음악과 · 실용음악과
대학원 | 일반대학원 · 신학대학원 · 신학전문대학원 · 사회복지대학원 · 상담대학원

422-742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89번길 52(소사본동) TEL : 032-3409-114 · FAX : 032-349-9400 · www.stu.ac.kr

신도림역에서 15분 (1호선 소사역 1번출구 도보 5분)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21세기 한국을 넘어 세계를 밝히는 리더!

아름다운 자연속에 첨단 기술로 빛어 올린 세계 최고의 캠퍼스

서울대학교총동창회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해도 고갈도 없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깨끗한 지구를 위해

한화가 미래 에너지 태양광으로
더 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우리의 가슴 속엔 내일의 해가 함께 합니다

태양처럼 한화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 회비 : 2013년 4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 (2013. 3. 1~5. 20) · 일반 (2013. 3. 1~5. 20)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평생회비

(이사) △강종표 사회76
△고명진 미대77 △공석영 敎院64
△공정원 음대92 △권상미 SPAR19
△김광호 차대88 △김범수 경영86
△김현문 ACAD23 △김태규 의대76
△김혁수 AMP67 △김형열 법대80
△명태현 공대46 △문선희 의대89
△박경부 AIP20 △박관순 간호55
△박병렬 AMP67 △박성숙 의대65
△박영임 간호73 △박정수 GLP14
△박현섭 AMP66 △배봉현 자연88
△서근석 AMP16 △손병용 자연68
△송호장 사대75 △신진문 SPAR12
△심정보 大院83 △양희석 經院86
△염돈재 行院98 △이강근 인문81
△이강원 AIP31 △이경렬 미대69
△이석우 법대67 △이승규 의대67
△이영환 SPAR16 △이재구 사회76
△이진규 차대78 △이천수 HPM9
△이형주 농대66 △임용택 공대73
△정순백 SPAR17 △정우영 의대88
△정의용 문리64 △조흥구 공대68
△최병모 법대67 △최선희 HPM17
△최수일 상대55 △최수현 공대65
△최영미 약대83 △한기남 AMP69
△한병현 약대77 △한재열 AMP22
△한희승 AMPP11 △홍재희 GLP20
△홍정임 차대87 △황금택 농대75
△황대석 공대58 △황용승 의대69

(일반) △강 신 생활93
△강치원 SPAR22 △강태혁 SPAR22
△강학주 경영85 △고병구 大院91
△고진호 AMP74 △곽수만 AMP60
△권선주 SPAR22 △권용원 공대07
△김규옥 사회79 △김기남 AMPP11
△김남성 SPAR22 △김병석 차대79
△김병철 의대88 △김소연 사회04
△김애식 의대70 △김영기 음대77
△김영준 司院70 △김용기 AMP74
△김용대 법대79 △김원길 AMP73
△김의원 ACAD73 △김진완 SPAR22
△김창락 문리56 △김창용 SPAR5
△김태욱 공대94 △김태환 SPAR22
△김취곤 음대99 △남문식 ABKI3
△류철호 공대92 △문순천 AMPP12
△박 연 AFB11 △박강문 사대63
△박상규 사대53 △박승무 약대65
△박영석 사대02 △박재완 법대84
△박정환 자연83 △박종만 차대69
△박채규 자연90 △박철순 인문77
△박태병 SPAR22 △박승주 SPAR22
△백연수 농대61 △변원일 인문67
△봉석근 SPAR22 △서동진 공대78
△서범수 법대93 △서정욱 공대53

△서향수 ABKI1 △성영곤 인문77
△손광익 ABKI2 △손지훈 자연04
△송경숙 문리65 △신영진 APC17
△마코토 SPAR22 △양길현 사회74
△오구균 농대73 △오세창 공대04
△우강하 공대03 △원중희 SPAR22
△윤규호 문리58 △윤대해 사회89
△윤성환 SPAR22 △윤영호 사회81
△윤장근 법대73 △윤재민 IFP2
△이경우 SPAR22 △이근우 AFP7
△이대건 경영03 △이대복 行院77
△이두기 SPAR22 △이상하 농대56
△이승민 ABKI1 △이용재 SPAR22
△이윤후 공대54 △이재동 SPAR22
△이재철 공대79 △이종은 인문92
△이지연 법대97 △이지훈 공대86
△이혁근 농대08 △이호순 AMPP13
△이화영 차대98 △이희상 APC17
△장영준 경영81 △장유진 법대07
△전승원 SPAR22 △정 명 AMP42
△정길섭 SPAR22 △정세화 ACPM9
△정정래 의대91 △정해영 농대66
△정희선 ACAD58 △조민식 경영86
△조병현 법대74 △조용원 공대80
△조은희 大院84 △조인현 BCP11
△천길주 사회74 △최서희 사회00
△최석대 의대84 △최선영 미대83
△최영해 인문82 △최재영 공대80
△최재호 環院81 △최창희 공대06
△한계수 문리66 △한봉수 법대49
△한양석 법대80 △한운섭 공대79
△한이슬 공대07 △한인교 의대66
△한장선 공대79 △한지현 의대07
△함윤식 법대89 △허성구 공대69
△허은영 AFP8 △홍사영 공대79
△홍윤식 법대75 △황영금 음대50

이 사

◆인문대 △강상진83 △강창일71
△김광현76 △김능구81 △김덕출81
△김동철78 △김병철76 △박수현83
△손예철69 △신원식73 △유국환81
△이영인77 △이재경75 △이창운97
△정하연80 △진재기83 △한봉희77
△홍성범87 △홍성윤73 △홍종선75
◆사회대 △김기준77 △김대희81
△김용호75 △남기섭76 △노택선79
△류성록82 △박민식84 △박병룡80
△박희영80 △서동영79 △신봉길74
△신철식73 △오대영80 △유천일76
△이동훈74 △이목희71 △이재열80
△임유철84 △전승철81 △정봉교72
△정삼봉73 △정석구77 △정인억73
△정진욱87 △조태형88 △주순식73
△최범수75 △최영선77 △최익순73
△한병송85 △홍범교78
◆자연대 △권철안77 △김 윤68
△김관식84 △김규중72 △김현식91

△백병학72 △송세안75 △이동한77
△이명웅77 △정민화84 △정철희75
△조재린90 △진 민78 △최진우75
△한만현83
◆간호대 △김명숙61 △성송현74
△이선자61 △이윤경65 △정성희86
△조동란66
◆경영대 △강종선81 △구자일86
△김윤섭89 △김홍섭79 △류재욱87
△백우현74 △송영태69 △신종열90
△오선영83 △유태우79 △이영민83
△장영철76 △최창묵82 △홍석주72
△황수영80
◆공대 △강구선63 △강달영87
△강창렬79 △강희태58 △고 찬99
△곽병현67 △권명옥76 △권오준02
△권용원80 △김광옥62 △김남호70
△김노수45 △김덕우81 △김도심52
△김동성73 △김범석92 △김병욱76
△김성기80 △김성민91 △김순영92
△김영규76 △김영길60 △김원배55
△김원수61 △김재승72 △김제영71
△김종근54 △김주홍47 △김진근71
△김진영68 △김태문70 △김학제65
△남장수64 △노철근70 △노태욱69
△문석형50 △문희성53 △민경식50
△박기현74 △박상수59 △박용일62
△박우규70 △박인근75 △박재룡68
△박재종77 △박찬민57 △박태권55
△박태원49 △박현철85 △박호견69
△박황호65 △박효대76 △배영호63
△백성기67 △백승욱58 △백원필78
△변동필75 △변창훈70 △서남규69
△서문호68 △서영수86 △선우중호59
△성기초51 △손경업65 △송창영68
△신동준78 △신영수74 △심해경53
△안상형69 △안재휴52 △양기정67
△양배근82 △어성준67 △여인선75
△여인철75 △오성환59 △오창석69
△우진태71 △원정수53 △윤 백78
△윤경원92 △윤국노62 △윤맹현66
△이건우74 △이계환62 △이근명63
△이금석59 △이동춘53 △이병기70
△이병탁68 △이봉주67 △이봉환68
△이상준76 △이상호81 △이세열78
△이원세71 △이원표72 △이윤표77
△이재홍72 △이정일61 △이중국87
△이종남73 △이주선64 △이진우80
△이창호55 △이태순79 △이한주79
△이환범56 △이희승60 △임건목83
△임기석63 △장기욱53 △장진양67
△장진호72 △전효택67 △정석규48
△정익주68 △조광연70 △조대승81
△지 순54 △최완철69 △최재순90
△최홍영69 △하규성76 △하준환51
△한영호69 △한재성79 △허욱렬70
△현희현59 △홍광표54 △홍호식69
△황 철71 △황이선62 △황중구56
◆농대 △곽영철59 △권재홍83

△김경하71 △김민수73 △김영섭65
△김윤경70 △김종대72 △김탁현78
△김풍진71 △김현구50 △김훈동63
△리신호74 △목세균63 △문동준70
△민경택88 △민순홍74 △박승우67
△박영문71 △배정길61 △백창영69
△서병륜69 △서승덕55 △손해일67
△손환규64 △신용석61 △심용섭70
△안수구73 △염익환78 △오세인55
△오승관77 △윤동원79 △윤종철83
△이규재50 △이병일57 △이봉영76
△이상걸79 △이상용61 △이승겸75
△이영호65 △이장섭52 △이재기53
△이학재83 △이형주81 △이희수80
△임순만62 △임장희89 △장영진86
△정봉진73 △정세진70 △정수봉60
△정일성62 △정창주53 △조영래82
△최찬식56 △한정남65 △한태호83
△함종환63 △허길환65 △허정화72
◆문리대 △강승렬62 △고광용60
△구병희62 △권오득63 △권혁방65
△김관식56 △김기주54 △김상진71
△김수진57 △김영일62 △김유승68
△김종하53 △김춘석69 △류종탁56
△민영기57 △박동수46 △박용안57
△박재찬71 △방석기62 △송규정63
△안승원68 △양이훈65 △오영일61
△오완영59 △유보일60 △이기원50
△이병형67 △이상직66 △이성우63
△이영래60 △이영록66 △이원홍52
△이종희54 △인태오57 △임병석54
△임의신62 △임형택62 △장부일69
△장정환56 △장홍주70 △정 광62
△정구훈65 △조원규48 △지경홍60
△천상덕71 △최 웅69 △최정도62
△최홍근70 △하영식58 △한태길69
△허운욱57 △호문익61 △황경호54
◆미대 △강신욱86 △김 태51
△민철홍54 △성기정58 △안종문60
△이선원75 △전민숙74 △정종해67
◆법대 △강대석67 △강상진87
△강승준85 △강희철75 △경우근67
△경종철60 △권동렬59 △권순민89
△권은민82 △기우종85 △김 훈85
△김경태63 △김권택63 △김기현78
△김남근82 △김동원52 △김두희58
△김명종85 △김병국66 △김상근86
△김승욱60 △김영일60 △김영재57
△김영태84 △김완섭65 △김용환60
△김유동86 △김의환81 △김익하60
△김재덕73 △김정학71 △김종률81
△김종상65 △김종일52 △김진관71
△김창희82 △김창희82 △김현산54
△김현석79 △김형선57 △김흥면72
△니정욱59 △노신영50 △노창동82
△류기홍58 △명노승65 △문효남74
△민병국57 △민수광60 △민수명60
△민일영74 △박국수67 △박만호57

△박상기56 △박상일77 △박성귀71
△박성진84 △박순백66 △박영수52
△박영식84 △박인수57 △박재경57
△박창현73 △박철언61 △박종근68
△박형남78 △배기운71 △배성진89
△배용재74 △변 욱57 △변재일59
△서경석67 △서규영79 △서상희68
△서정석65 △서정신58 △성문용63
△송병대67 △송상규84 △송언종56
△송진훈59 △신규태56 △신상규68
△신성철65 △신영수70 △신현일77
△신호철61 △안성일78 △안성희66
△안종윤51 △여상원77 △여상훈75
△오세현78 △오세희68 △오시열75
△오진환75 △오천석76 △우성만76
△유 훈49 △유기준78 △유남석76
△유병규83 △유병한77 △유정호62
△윤경희65 △윤교중65 △윤덕순59
△윤동운57 △윤보욱66 △윤우진71
△은현호87 △이덕모71 △이동명75
△이동특59 △이무룡61 △이민찬55
△이상우57 △이상주82 △이상진70
△이성웅61 △이성호76 △이세창57
△이승철81 △이용우92 △이원호61
△이인표54 △이재근82 △이재순77
△이재창56 △이재철70 △이재철77
△이정훈89 △이진배56 △이충범78
△이태운68 △이현욱78 △이효종59
△임 경78 △임내현71 △임종식79
△임한흠73 △전병식70 △전용희81
△전응진49 △정경택70 △정광우61
△정기용77 △정대권75 △정덕흥68
△정세용74 △정연조55 △정용달81
△조남대83 △조동주53 △조문부55
△조영삼81 △조해근78 △조해현81
△주석영79 △주진학54 △지홍원58
△최상엽56 △최상원82 △최연희64
△최원주77 △한덕수55 △한승희55
△함영업57 △허영범88 △현순도66
△현홍주59 △홍경식70 △홍성무73
△홍진태52 △황보경석50 △황영선55
△황이연55
◆사대 △강기창73 △강영삼59
△고영신73 △곽후섭52 △구본형75
△국해웅63 △김경자71 △김덕호73
△김상구60 △김영애64 △김영진51
△김용근65 △김재성82 △김재호53
△김종원61 △김종찬87 △노갑기66
△민흥기59 △박익두64 △박종현70
△박찬구56 △박화엽64 △백승권53
△설동균68 △송광섭77 △신하영58
△오두범64 △왕문용66 △유덕준60
△유영채70 △윤규태65 △윤용섭61
△윤재봉56 △이기준67 △이노연58
△이상락67 △이영길81 △이원강57
△이주연79 △이찬근74 △임향순60
△전용근73 △정상윤74 △정영수84
△정응근63 △조경오75 △조용복55
△주운수66 △최기숙65 △최돈형68

△최영상56 △하상기74 △홍석영85
△황승기69

◆상대 △강승구65 △구선희56
△구영보69 △권혁승53 △김경모61
△김녀명63 △김상희66 △김영준71
△김원길61 △김창달53 △김철영70
△김하두64 △나길웅61 △남영태65
△남정우60 △노인환54 △문영도50
△문철현56 △박 간68 △박영조61
△박종민64 △박해룡58 △배홍규53
△백창기61 △변병주60 △서정도66
△선종승71 △손상모53 △손희관46
△송국현56 △신명호46 △신해철69
△심재엽63 △엄수명61 △오강욱56
△우순구53 △우찬목55 △유석렬70
△윤우진61 △윤종현44 △이국희56
△이상근53 △이상득57 △이세근63
△이승웅60 △이용성56 △이용휘57
△이유운68 △이재규65 △이태형59
△이한희54 △임종두61 △장덕신71
△전문준64 △전창수57 △정병호53
△정주호65 △조영삼71 △조원구64
△조창제57 △최경식59 △최남식59
△최명해68 △최행주66 △표하길66
△한도형69 △한병무59 △홍용찬64
◆생활대 △송운주91 △정영진68
△정현희72 △최영선71
◆수의대 △김계방61 △김용팔75
△나종극54 △박재학77 △신현일57
△윤화중54 △이 준62 △이각모64
△이강남66 △이도필49 △정용근67

◆약대 △김상조54 △김수경57
△김영택61 △김장호65 △김효준71
△박대창69 △배영일60 △송창진54
△신형균72 △심규장70 △심우원72
△안병욱68 △양현하66 △오연준56
△오응준58 △우중균61 △유태숙72
△윤도중58 △윤웅찬68 △이세영57
△이용연72 △정연진69 △주승재86
△최규팔70 △최명식64 △최진근77
△한규홍64
◆음대 △강덕원69 △김미경69
△김영목77 △김용희81 △남지현85
△손국민64 △신상호74 △신혜정82
△이명희68 △이방실92 △이선이84
△이승현87 △이종길85 △이혜정81
△장재흥57 △최승용78 △최승준65
△황응준87
◆의대 △강재훈88 △고건성67
△고광철79 △고원순68 △고행일64
△길민석84 △김근식53 △김기락68
△김기영53 △김명석62 △김성오87
△김영균43 △김용봉70 △김인호71
△김종환50 △김창석85 △김현우64
△노문진90 △동영승49 △맹국영68
△문태준44 △박노현78 △박세용76
△박소배72 △박주배68 △백대진74
△서동희88 △손봉기73 △송영주74
△양성범75 △유경삼64 △유지문54
△윤준기93 △이갑순55 △이강진74
△이관희75 △이기석92 △이대규53
△이봉화75 △이부영52 △이순형56

△이운호68 △이의용72 △이정길63
△이종석79 △이종호81 △이충원76
△임태환70 △장성근71 △전성환74
△전형식81 △정동철54 △정영덕70
△정을삼60 △정필현82 △최인호70
△한덕중69 △한진희71 △함돈일84
△홍기정81
◆치대 △강효식57 △구본석78
△권오균71 △권오양74 △김 일51
△김경남72 △김능세70 △김병찬69
△김봉호56 △김영철61 △김운영58
△김장현77 △김정욱83 △김지호59
△김전식71 △김태의60 △김현재87
△김현풍60 △김휘철70 △남용욱51
△박명중79 △박세운86 △박승범01
△박용준54 △박찬우65 △방수남62
△백성기71 △백승동78 △백승진75
△서성구74 △석창인81 △손일수71
△송재용82 △신동인76 △안건모83
△양일수73 △양재호64 △연태호81
△유기준86 △유태영63 △윤동호80
△윤학영62 △이병우76 △이상재75
△이승중69 △이승중69 △이시우59
△이영대70 △이원재72 △이준규66
△이창우75 △이청룡70 △이형규57
△임성수60 △임종수81 △전태수56
△정관서79 △정관서79 △정호길71
△조행작64 △진윤수80 △허재식93
◆대학원 △권병남81 △김경진84
△김기혁85 △내병만77 △신호수85
△윤용훈97 △이시운81 △이충우84

△장승재83 △지충수71 △최원희81
△하두봉56 △황철웅96
◆경대원 △임인규88
◆보대원 △박순영63 △박원길65
△박희서77 △신석우65 △정두채80
△정상호99
◆사대원 △석용진65
◆신대원 △김희목76 △유일상72
△황영일70
◆형대원 △공병영90 △구기성89
△김덕중82 △김익영68 △김인동65
△남호현82 △양석호67 △정영섭66
△최상철64
◆한대원 △권 완76 △김제성78
△박경자76 △박상락84 △박유정90
△박형석74 △사공호89 △석영철71
△이만의73 △이평재73 △정양희79
◆AMP △고시목8 △고은봉33
△권점주65 △김봉규20 △김상훈68
△김영도23 △김영환34 △김주한50
△김진섭9 △김홍래36 △노연웅48
△노태식64 △박달용4 △서 구41
△성영창26 △송원중63 △송학성63
△신지윤66 △심계진36 △오희택1
△우재영7 △유병운23 △유재열35
△유재천31 △유진석32 △육신학57
△윤종호48 △이경태31 △이순구63
△이원구50 △이운로50 △이용표36
△이재민63 △이재형59 △이정훈54
△이주현45 △이호수35 △장기홍8
△정석재61 △정영대48 △정환진47
△지대섭56 △차문현67 △천용택31
△한종희28 △허덕행2 △황의영59
◆AIP △김동하29 △김영식33
△김용태30 △김운종31 △김장근15
△김종필40 △김학규26 △문일권39
△박명식16 △박병철41 △박양신20
△박영구31 △박용진35 △박종호9
△서영복19 △손광열9 △양 명9
△윤명수30 △이갑순9 △이득준40
△이종호31 △이창규11 △임한복21
△전재홍43 △전종윤10 △정동진28
△정봉성29 △정창현20 △최정남22
◆ACAD △권영호60 △김광수68
△김우연14 △김종식60 △김창식45
△김태환38 △서찬교40 △유내형17
△이강국63 △이상영40 △이상호71
△전병순42 △조홍규26 △최수근61
◆ABP △김선제9 △김성일15
△김영근15 △김정택23 △류광하7
△이계용2 △이상래24 △이수연23
△이관철3
◆SGS △고병준22 △김수근2
△김제남19 △김종호4 △김희철12
△원훈순15 △이래원6 △임경보11
△정해순15 △황종현18
◆APC △이용배5 △조갑환9
◆HPM △권기진8 △김광화9
△김민규23 △김홍구12 △노동일7
△배영봉14 △안호원6 △엄신희14
△이석기14 △이철희4 △정지문14
△정호용8 △황영집26
◆AMPP △류귀식7
◆AIC △백재현4 △송호룡19
△이강록13 △이인기11 △장낙진13
△최세근9
◆AFB △방운석10 △이동락1
△이영두9 △정일진10
◆AMPFRI △강정목9 △권 순4
△김일동8 △김정훈1 △백두철9
△이태갑14

◆ACMP △강현찬6 △권오봉6
△김범용6 △민평기4 △박찬의7
△이종수1
◆GLP △강창석14 △권덕수15
△금상연19 △김중대20 △김형중17
△노윤호12 △서승욱19 △신명진13
△윤여표11 △이준형5 △임재묵9
△한충권20
◆ALP △백정기6 △손용근6
△윤태석9 △좌상봉12
◆SPARC △권세원16 △석종호19
△임석우19 △정삼진18 △최홍영11
◆AFP △조원국5
◆ASP △박도규14 △오성환6
△채수철15
◆IFP △김용배2 △한민석3
◆BCP △권영진6

일 반

◆인문대 △강지연03 △국순엽80
△김 영88 △김성호87 △김소희02
△김영인83 △김하녀05 △김현동04
△노민혜08 △류재민04 △박지수07
△박철순77 △백승희83 △심재우86
△이동립88 △이명관81 △이민주06
△이선주97 △이인서95 △이재학82
△이한목72 △임채희84 △장수현98
△장영덕78 △최완석98 △한상희83
△함혜선06 △홍주영99
◆사회대 △강성두78 △고희경05
△고희경05 △권용신86 △김 선07
△김 열70 △김강이07 △김동진88
△김법정86 △김병규05 △김석기78
△김슬기06 △김승기69 △김연광80
△김은혜08 △김의중97 △김일권03
△김재형97 △김태호86 △김혁래98
△김현균03 △김흥수85 △노광일77
△박상훈87 △박호준00 △방동욱00
△배종하75 △백두현82 △변동희73
△서의근81 △서정하74 △송광조80
△오경수00 △오세인07 △원영준90
△유재상04 △윤선기83 △이광오73
△이세준82 △이수민07 △이승훈02
△이용봉85 △이종선87 △이찬복98
△이창수85 △장홍근81 △전상현91
△정우진95 △정주성03 △제민호82
△조동호92 △조현진85 △최진유06
△최창희03 △한창욱92
◆자연대 △강경관70 △강문기68
△고민섭03 △권혁준06 △김광영86
△김기표00 △김두현90 △김병수74
△김영찬06 △김준식91 △김지수03
△김진복74 △노정현04 △박대열68
△박태욱95 △박희망10 △서민석02
△손승민08 △안득수02 △양희웅92
△엄상영77 △이동영01 △이병일94
△이원석05 △이은진08 △이정엽88
△이철현82 △장원석96 △장종만72
△전동오84 △전용호75 △정 황72
△정병철81 △최나라98 △최승주72
△최인호08 △최지한87 △추성엽75
△하 룬07 △한지형07 △허재영05
△황인환02
◆간호대 △권오겸56 △김다영07
△김시정95 △김재희84 △신혜경68
△윤미여76 △이창우55 △정예환58
△전귀능83 △조결자62 △최영희65
△현정희84
◆경영대 △강민선83 △강왕수84
△강태웅79 △고광호85 △김성민02



www.kftec.com

상장 기업
KRX 코스닥 상장

2012년 3월 코스닥 시장 상장

The World Best Quality

KFTC Automotive Fuel / Interior System Supplier
업계최고의 기술개발 및 설계능력을 보유한 **코리아에프티**는 미래를 내다보며 중국 인도, 폴란드 공장을 설립, 글로벌 기업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 상품 인증

● FUEL SYSTEM



• CANISTER



• FILLER NECK



• INTAKE HOSE



• FUEL RAIL



● INTERIOR PARTS



• DUCT ASSY - CONN & DEFROSTER



• SUN SHADE



• PIL ASSY - CLUSTER FACIA -LHD/RHD



• TRIM ASSY - RR PLR,LH/RH

Global Manufacturing



Poland Factory (KFTP)



India Factory (KFTI)



China Factory (BKFTC)

**코리아에프티 주식회사**

본사 및 연구소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반재리 산 115-1
TEL : 031-650-1500 FAX : 031-650-1517
판 고 사 무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에이치스퀘어 S동 901호
TEL : 070-7093-1300 FAX : 031-789-3990

MAIN CUSTOMERS



안성 공장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반재리 산 115-1 **죽산 공장**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1366 **경주 공장**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1189-15
중국 공장 : BEIJING, CHINA **인도 공장** : CHENNAI, INDIA **폴란드 공장** : ZABRZE, POLAND

△김영모79 △김운호88 △김형태81
△노진민83 △모영철88 △박주선86
△방한솔00 △서동규84 △서학수82
△오진환77 △이철주81 △임정오68
△장인출85 △최지윤07
◆공대 △강영식68 △고근희54
△고순민98 △고항규68 △공석봉51
△공철규57 △구본현73 △구정모93
△구형모79 △권기동63 △권기정67
△권봉일69 △권순학64 △권영하64
△권오동69 △권오석60 △권혁일96
△김경민02 △김계전53 △김광은63
△김광일56 △김규남47 △김대웅52
△김대웅61 △김동구70 △김민규74
△김병남73 △김병훈98 △김상규59
△김상식58 △김상원94 △김성민99
△김세진47 △김세환61 △김양후05
△김언기05 △김용백61 △김용익50
△김원석10 △김재봉69 △김재업87
△김정선81 △김정원63 △김정혁00
△김정혁00 △김정훈03 △김종민68
△김종현72 △김주찬75 △김주하01
△김채식54 △김철구65 △김철순53
△김철호72 △김태문55 △김택중56
△김현국90 △김현동06 △김홍근76
△김희령86 △남광문61 △남기동43
△남기현03 △남영태60 △노승규82
△노홍조48 △라종민05 △류지현92
△문동민57 △민병찬43 △민영빈01
△민철기56 △박경호73 △박동재51
△박석현67 △박성현97 △박승균63
△박용기71 △박용승54 △박이관58
△박준현07 △박지성03 △백사익40
△백선욱62 △백학기52 △서상욱80
△선병수81 △설재훈92 △성호용03
△손계욱70 △손승래54 △손지호02
△손택만82 △송미화02 △송슬지05
△송영수01 △송영찬06 △송재극52
△송정우08 △송현택49 △신동성64
△신상묵73 △신현식50 △심용기53
△심재한53 △심진보02 △안재식03
△안정욱02 △안준규01 △안준영52
△양동률50 △양준모85 △오영환68
△오창국92 △오희근81 △우경호78
△우상렬52 △우종민97 △원경식77
△원진희48 △위정섭98 △유무웅58
△유송현99 △유택노52 △윤남진53
△윤남하51 △윤봉한64 △윤여경48
△윤혜림87 △이갑연83 △이경훈99
△이국노80 △이규생57 △이균상62
△이근환05 △이기설47 △이덕락78
△이미지03 △이법철65 △이복영55
△이상순67 △이석규57 △이성기58
△이성실51 △이승욱56 △이승호86
△이신욱52 △이연주93 △이용희71
△이원구85 △이인희56 △이재국06
△이재순74 △이재욱97 △이정호65
△이종길87 △이종수65 △이지성02
△이창복56 △이현순69 △이현웅01
△이호현51 △이화용70 △임일택84
△임정명58 △임현용69 △임형준04
△장경욱95 △장동근55 △장두희82
△장학순46 △전기명60 △전문희53
△전영동05 △전현철07 △정병일50
△정산진68 △정인수73 △정재준90
△정정운62 △정진수67 △정치권60
△조득호66 △조래승56 △조영선63
△조용준02 △조춘식70 △주의철89
△최규식00 △최규언58 △최명진08
△최영태70 △최종민01 △최현수85
△하상모98 △하종민05 △한건우55

△한상윤08 △한상흠85 △한정빈63
△한현선97 △현익환82 △홍성철87
△황인호56
◆농대 △강경원52 △강남권80
△곽은주97 △구능완56 △구회진04
△권태결57 △금방용85 △김두만52
△김두식55 △김명록46 △김문수54
△김봉규82 △김삼식53 △김영규51
△김영상58 △김영조82 △김윤조89
△김응년65 △김의철84 △김이기80
△김인철01 △김재영94 △김재은84
△김재홍57 △김종성55 △김종전53
△김주용08 △김준평48 △김준호86
△김태희57 △김한석66 △김항림03
△김현주03 △김현호84 △나병용69
△남구한60 △남상운80 △노진표55
△류남렬50 △류제민04 △민선홍58
△민영준48 △박 호59 △박남중54
△박동우70 △박상순86 △박숙규48
△박순석50 △박재성05 △박재욱59
△박진화57 △박찬구87 △박창호58
△박천운91 △박한수82 △박형운55
△백성규02 △백유현55 △백응현64
△변양석59 △서성원93 △서완수58
△석창건00 △성우경50 △손진규82
△송계원45 △송기덕55 △송영달55
△송종관52 △신민종79 △신상혁56
△심상우57 △양동섭90 △양백산55
△양준웅63 △엄태영53 △오세훈58
△오정형60 △유광일66 △유신상56
△유영준59 △유진준67 △유향하68
△윤동면65 △윤창영76 △이강남61
△이경용53 △이계은55 △이광선57
△이두환75 △이민정03 △이병전55
△이상직56 △이성수67 △이수봉57
△이수욱55 △이순실71 △이승찬65
△이시규73 △이원재80 △이중훈48
△이창구66 △이춘녕36 △이홍석52
△전석수62 △전종갑72 △전현기64
△정관모54 △정민섭59 △정승모50
△정승우02 △정연석48 △정용복51
△정진욱56 △정준희57 △조규탁86
△조선호54 △조성환51 △진영호66
△최무재53 △최영일46 △최영주75
△최용현80 △최원개50 △최원철94
△최유지97 △하맹종58 △한기학52
△한석현52 △한재용80 △한정수51
△한춘연52 △한태수65 △한해룡55
△홍택영57 △황재문69
◆문리대 △강낙중56 △강석명56
△강신성55 △강영원70 △곽광수59
△구자홍63 △김계란52 △김광규60
△김기근69 △김기동65 △김동일58
△김동진62 △김명수54 △김명환61
△김선리64 △김영웅63 △김옥남52
△김옥민51 △김유석55 △김인관55
△김일송63 △김정숙58 △김종희56
△김중하57 △김진석59 △김태욱58
△김한도56 △김형면66 △김형호58
△도홍길61 △박용배59 △박찬범62
△변광수65 △변창명56 △서인수50
△소광희53 △송길상48 △송병진59
△신장효59 △신현식56 △심수보62
△안남순54 △양 원55 △오근태56
△오현승65 △유병길68 △윤석태61
△윤용진59 △윤하정47 △이 강56
△이광열71 △이규증55 △이성재59
△이연희51 △이원희55 △이재술57
△이중무58 △이종인54 △이중길62
△이창훈47 △이준기54 △이해정48
△임재호58 △장종학59 △전종현55

△정기호50 △정서구65 △조 흥66
△조계찬47 △조성술53 △조영길58
△조한무62 △지정택70 △천승결58
△최동환49 △최명근57 △최봉석69
△최선록59 △추호경65 △하인경66
△허두표60 △현영욱67 △홍경화54
△황원섭64
◆미대 △권순형49 △금기원00
△김경애68 △김충경54 △김호결53
△박소영97 △유희영58 △윤선이87
△윤영출82 △윤옥진64 △이길중60
△이상은86 △정상원58 △정정자60
△정치환60 △최연희68 △최은규77
△허수영91 △현숙자56 △홍경희66
△홍순무54
◆법대 △강병연57 △강석균50
△강이수58 △강진성55 △고재화62
△곽창욱58 △권종철77 △김 숙69
△김 신76 △김국열92 △김국진60
△김규연61 △김근태49 △김기경85
△김명진74 △김병문62 △김병호82
△김봉환61 △김석재88 △김성룡60
△김성배73 △김시형58 △김양섭90
△김영광84 △김영근57 △김용재83
△김용제53 △김윤구51 △김재규49
△김재규57 △김재기68 △김정환57
△김종성67 △김태훈68 △김학근75
△김현민61 △김혜수07 △김호현61
△김홍재53 △노이현56 △류재신48
△문상일84 △박세철51 △박승준80
△박인환51 △박종국65 △박종태84

△박진우92 △박태호67 △반성우53
△배용원86 △백덕열67 △백보윤61
△변희찬78 △손관호51 △손상민02
△손재식52 △손제연98 △송재현60
△송진현71 △신 신55 △신성오60
△신은철81 △신종현69 △신현무58
△신호양59 △심훈종56 △안창수52
△양정일87 △오권철92 △오대혁84
△오석환51 △원은섭63 △유병순55
△유재성59 △유해돈55 △윤우정61
△윤형환66 △이 흥62 △이강명64
△이권형00 △이대영58 △이대우67
△이상준66 △이상철79 △이순복54
△이승주05 △이양순55 △이재성78
△이중훈78 △이태희58 △임상현59
△임승관70 △임승언56 △장정우89
△전병덕47 △전태환84 △정서용05
△정인숙81 △정재일52 △정준영85
△정창섭74 △조성기68 △조성일61
△조영진66 △지원훈61 △최강호67
△최규홍80 △최세윤01 △최영룡78
△하성대49 △한상술58 △한승철82
△한찬식86 △허만조64 △호영진56
△황성진66
◆사대 △고무송65 △고웅섭54
△고준식51 △권문한74 △권정순59
△김명수68 △김문수71 △김병국56
△김병식81 △김봉호68 △김상수57
△김선주76 △김용복57 △김유명69
△김인숙58 △김재은50 △김종화68
△김준환61 △김준호50 △김중호60

△김증자61 △김창걸56 △김채현07
△김형구56 △김혜선02 △김혜정85
△김환수03 △김희분50 △남기종54
△남유선04 △문정환59 △민영업55
△민혜식52 △박동근62 △박상규53
△박영배54 △박인호53 △박정남57
△박지영07 △박춘진57 △박현수76
△변재용59 △서 혁82 △서인경51
△서태근56 △손욱호72 △손종국55
△신각범54 △신동순53 △신용국55
△신일용78 △신진희87 △안운신55
△안재석86 △양흥룡71 △염동일63
△유기웅59 △유명수61 △유민영57
△유소희06 △유양선56 △유자효68
△윤석오64 △윤성렬60 △윤혁준04
△윤희태99 △이계숙45 △이광열56

2013년 4월	
연 회 비	70,830,000
평생회비	62,200,000
입 회 비	460,000
계	133,490,000
2013년 누계	520,022,000

(지면관계로 사범대 이후 단과대학(원) 및 특별과정 일반회비 납부자 명단은 다음호에 게재합니다)

Always with you_ Green & Clean

깨끗한 환경을 위해 실천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GREEN 경영으로 쾌적한 세상을 만듭니다.
고객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합니다.

"충남을 대표하는 종합에너지 기업 중부도시가스"
초록의 무한 에너지를 아름답게 지켜온 중부가족이
고객님의 믿음과 신뢰를 변함없이 이어갑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환경을 지켜가는 깨끗한 기업,
사회에 공헌하는 으뜸 기업,
건강하고 풍요로운 내일을 만드는 든든한 기업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중부도시가스
www.jbcitygas.com
JB에너지
www.jbenertek.com
중부재단
www.jbfoundation.or.kr

꿈을 키우는 세상™ 
KYOBO
교보문고

스마트폰으로
연예 기사를 읽으면
친구와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전자책으로
시 한편을 읽으면
자신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교보문고,
당신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교보문고 eBook **sam**

사랑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랑을 만든다.



아프리카에 사는 카림과
남극에 사는 아기펭귄
둘 다 행복해지는 기술,
한화케미칼의
첨단기술입니다

인간은 물론 지구까지 생각합니다.
오늘은 물론 100년 후까지 생각합니다.
석유화학에서 태양광, 바이오, 2차전지소재,
나노기술까지 인간과 지구를 혁신하는
첨단기술의 중심에 한화케미칼이 있습니다.

지구를 더 좋은 곳으로!

한화케미칼

